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주체성: 과잉과 대안의 성찰*

최 봉 영

문파폴학당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인간의 역사는 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을 구속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시켜 온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언어와 자의식의 출현이다. 자의식에 의해 성립한 주체성(selfhood)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사상적 무장을 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충족시키는 생활방식을 추구해 왔다. 바야흐로 기술발전에 힘입어 인간을 규정해 왔던 모든 제약을 풀고 신이 되는 것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주체성이 과잉적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 졌다고 본다. 주체성의 과잉 양상은 삶을 행복의 추구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행복강박증과 자기에성향의 증가라는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주체성의 진화 과정을 짚어 보고, 주체성의 조절과 관련된 자기실현, 자기초월, 성숙에 대한 논의를 일별한 후에 과잉 주체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주체성 확장과 해체의 논의를 살핀 후 한국인의 세계관에 바탕한 쪽자기적 주체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4차산업혁명, 주체성 과잉,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기실현, 자기초월, 성숙, 행복강박증, 자기에성향, 주체성 확장, 주체성 해체. 한국인, 세계관, 만자기, 쪽자기

-- '나'가 모여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 -- <출처 불명>

* 초안을 읽고 도움말 주신 김택신, 이종한, 국민호, 조성남, 이원강, 김서홍, 김선미, 이재우 님들, 세밀한 심사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과 참고문헌 정리를 도와 준 구소정씨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한규석,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길 11-1. 107-502.

E-mail: ghan@chonnam.ac.kr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 시킨 이후,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은 인간의 주체성 (selfhood)¹⁾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아왔다. 현대인의 주체성은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서구인들이 고대로부터 지닌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심화되고 확장되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전인미답의 모험적인 세계로 몰아가고 있으며, 아울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매우 과잉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과 환경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전개되는 변화가 세계사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혁명적인 생산방식의 변화를 뛰어넘을 것이라 예견되면서 제시된 용어이다(Schwab, 2016). 이 용어는 구체적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디지털과 결합되어진 혁신과 진보를 표방하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지만, 강한 인공지능 및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와 더불어 큰 불안도 야기하고 있다(이상현, 2018; 이태수, 2019). 불안의 핵심은 초지능에 도달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에게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무관심한 상황

이 도래할 수 있고, 어쩌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실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상욱, 2020). 필자들은 인간의 편익을 기술 위주로 추구하면서 맞게 된 4차산업혁명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주체성의 확대심리가 과잉 작용한 탓이라 본다. 이런 주체성의 과잉상태가 야기된 심리적 요인을 역사 문화적으로 검토하고, 주체성 과잉과 관련된 심리학자들의 논의(자기실현, 자기초월, 성숙)를 살피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과잉된 주체성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되는 주체성의 확장과 해체에 대한 주장을 살피고, 한국인의 세계관에 바탕하여 쪽자기적 주체성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체성 과잉의 현상

주체성의 진화

사람은 저마다의 몸을 갖고 주위의 것들과 어울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저마다의 몸을 지닌 존재로서 사람은 남들과 구별되므로 저마다의 몸으로 경험하는 아픔과 기쁨 등의 감정은 자신의 몸으로 느끼며, 누구와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다²⁾. 모든 유기체가 저마다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주위의 것들과 어울려야 가능하다. 주위의 것들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기, 물, 나무, 돌과 같은

1) 이 글에서 필자들은 주체(성)를 자기(성)와 혼용해서 쓰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익숙한 ‘자기/자기성(self/selfhood)’의 핵심은 삶의 입자(주체)로서 보이는 생각, 감정, 행동이지만, 심리학자들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조망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자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주제상 주체성이라는 용어가 더 뚜렷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여기므로 Self를 주체성이라 쓰고 때때로 자기라는 용어도 쓰고자 한다. 한편 에고(ego)라는 용어는 지키고자 하는 욕심의 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영어에서는 주체를 Subject 라고도 쓴다. 이 단어는 ‘주체, 주제, 주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형용사로서는 ‘~에 속한/종속된’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심리학에서는 실험참가자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는 주체가 아니라 실험조건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온갖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어느 한시라도 몸 밖의 것들과 교류 없이는 살 수 없다, 심리학에서는 주위의 것들을 사람에게 국한시켜 왔을 뿐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생태계의 존재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Danon, 2019; Jordan, 2009).

저마다의 독자적인 주체성(agency)과 주위 것들과의 어울림성(communion)은 삶의 두 가지 실존적 양상이다(Bakan, 1966)³⁾. 주체성은 남과의 구별을 바탕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보호하고, 키우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망을 꿈꾸는 능력은 물론 이런 활동을 위하여 스스로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이런 주체성의 행사가 방해받거나 좌절될 때 분노나 공포를 느끼고, 종종 이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실패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 불만스럽고, 우울하게 만든다. 철학자 니체와 심리학자 아들러는 힘에의 의지를 삶의 핵심 동기로 제시하며,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어울림성의 특징은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동체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타인과 정서적 교감과 일체감을 느끼며, 공동체에의 헌신 및 조건 없는 자기희생을 포함한다. 주체성과 어울림성은 실존의 두 양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만, 서구인들은 주체성을 중심으로 어울림성을 예속시켰다. 최근에 어울림성 혹은 사회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나타나며, 주체성 중심의 인간 이해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장대익, 2017), 대부분 주체성

이란 주 관심의 보충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의식의 출현

다른 것들과 구별된 자기만의 몸통을 지닌 모든 생명체는 개체성을 지녔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자의식을 모든 생명체가 지닌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Gallup, 1998; de Waal, Dindo, Cassiopeia, & Hall, 2005)들이 고등동물에게서 자의식의 원초적인 모습이나 관점 취하기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동물들이 자의식적 통찰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3자적으로 인식하는 자의식은 과거의 자신이 어떠한지 평가하고, 현재 잘하고 있는지, 며칠 후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심리학자들은 자의식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종들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라 본다(Baumeister, 1999; Leary, 2004).

자의식의 여러 측면(Neisser, 1988)이 인간의 조상들에서 출현하는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검토한 연구(Leary & Buttermore, 2003)는 자신을 주변 환경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는 능력,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는 능력, 다른 개체와 교류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인식, 자신의 내밀한 모습에 대한 파악 등과 같은 자의식의 원초적인 형태가 초기 유인원 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자신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 개념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현생인류(사피엔스)의 출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4만~6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에서야 나타났다고 본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이전

3) 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과 박선웅(2016)은 Bakan(1966)이 제시한 주제 ‘인간실존의 두 차원성’과 관련된 심리학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면서 독자성(agency)과 융화성(commun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대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도구의 제작과 함께 그림 그리기, 의식적 행사, 몸 치장, 노래와 춤추기 등이 행해지는 ‘문화적 빅뱅’ (Mitche, 1996)이 나타났다고 본다. 이 시기 이전의 고인류(직립원인, 네안데르탈인 등)는 현생인류와 사뭇 다르지만, 이 시기에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는 오늘날의 사람들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추정된다(Leary, 2004). 이들은 앞날에 다가올 일을 걱정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의식이 뚜렷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

자의식의 출현 이유에 대한 여러 분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도화된 인지 능력과 두개골의 구조변화이다. 문화적 빅뱅 이후의 인류 두개골은 현생인류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 고등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Leary, 2004, p.20). 이들에게 인지능력의 고도화가 야기된 이유로는 언어의 사용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Bickerton, 1990; Mellars, 1991; Noble & Davidson, 1996). 언어는 상징체계이다. 대상에 대한 인지적 표상인 단어들과 이 단어들을 꾸미고 이어주는 말(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들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쓰임새와 사용의 규칙이 안정적이고,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초보적인 수준의 소통을 위한 언어의 사용은 300만 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보지만, 오늘날 인류가 쓰는 복잡한 표현이 가능한 언어의 사용은 진화과정을 거쳐 훨씬 후대인 10만 년~3만년전 사이에 나타났다고 본다(Gibson, 1996). 언어는 자의식을 포함하여 인간의 의식세계의 기초구조를 닦아 놓았다(Bickerton, 1990). 언어가 없다면 자기반추적 사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다양

한 사건과 자기 모습에 대한 추상화는 물론 복잡한 내용을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어사용을 매개로 발달한 자의식 능력은 추상적 개념인 ‘나’ 혹은 ‘자기’를 모든 일의 중심에 두게 만들었고, 이는 자연선택의 진화 과정에서 순기능을 하게 되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알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존재, 또 자기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는 그렇지 못한 존재에 비해서 불확실한 환경조건의 변화에 훨씬 적응적인 행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때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하여도 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삶이란 매일 매일의 식량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영위되는 수준이었다(Diamond, 1987). 며칠 앞을 미리 생각하여 계획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농업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먹거리를 찾아 떠도는 생활에서 벗어나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⁴⁾. 정착하면서 계절 변화에 대비

4)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략 만이천 년 전에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식량을 조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해 야생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거나, 인구의 증가로 야생에서 조달하는 것만으로는 식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처하였거나, 도구의 발달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된 상황의 변화 등이 모두 농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여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Diamond, 1987).

하여,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일을 나누거나 공동으로 하면서 수확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펼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일이 분업화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구분되면서 적어도 4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에 이미 사회의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고, 가진 자들의 가족에서는 유산이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Siedentop, 2014).

주체성 과잉화의 사상적 배경

고대 그리스 시대 델피의 신전 벽에 쓰여 있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서양철학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함에 이 질문은 가장 핵심이었기에 ‘나’의 특징, 정체감을 파악하여 삶과 실존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였다. 이 질문이 서양철학의 흐름에 핵심이었지만, 동양의 사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유가, 도가에서 이 질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가에서 나타났지만 그 답의 성격은 동서가 판이했다. 서양에서는 생활의 주체인 자기를 근본으로 삼고 세상을 이해하려 들었고, 불가에서는 자기를 해체해 버렸다. 유가와 도가철학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자기를 규정하였기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진행된 산업혁명 이후 서구 열강은 제국주의 정책으로 동양을 침탈하였으며, 오랫동안 식민지 경험에서 고초를 겪은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사상과 문물을 존송하는 서구화 정책을 폈다. 1980년 이후에 교통수단 발달과 인터넷이라는 통신혁명의 진행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의 사상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개인보다 체제가 우선하는 것을 당연시 하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현지의 세계관과 부딪쳤지만 우월한 문명을 받쳐주는 사상이라는 인식에서 현지인들에게 수용되고 확산되면서⁵⁾, 서구 사상은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성 과잉 혹은 주체가 부풀려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삶의 주체라고 여기는 자기가 지닌 특성이나 생각에 몰입하여 이 특성이 더욱더 강화되어 작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몰입은 탈규범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어서, 이를 막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런 몰입이 권장되기도 하여(칙센트미하이, 1999),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그런 몰입 상태에 빠져들면서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태가 심화되고 널리 퍼지면서 중요한 가치체계를 잠식하고 전복시키며 사회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인식을 주체성 과잉⁶⁾이라 본다.

- 5)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처럼 되자)를 외치며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 정책을 펴던 일본에서 서양 사상을 수입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없던 개념인 ‘individual’ 이 ‘개인’으로 번역되어 쓰이면서 한자 문화권으로 퍼지게 된 예를 들 수 있다(야나부, 2003).
- 6) 심리학자로서 이 용어(the inflated self)를 처음 제시한 Meyers(1980)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기본위적 인지편향 탓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고, 더 공정하다고 여기며 지나친 자긍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자들은 심리학, 철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의 여러 연구로부터 개인주의가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이자 인간관이 되었으며, 이 개인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정치사상과 접목하여 그 뿌리를 더욱 굳히고, 퍼져 나갔으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에서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개인주의

사람의 특징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신이 지닌 성격이나 기질, 기호, 능력, 동기,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은 오래 되었으나, 철학으로서 개인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나타났다(Mohd, 1987). 오늘날 이 경향성은 더 심화 되고,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여겨지던 주체(self)의 특징에 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여 수많은 문화비교적 연구를 선도한 Markus와 Kitayama (1991)는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심리적 특징을 저마다 개체로써 타인과 다르다는 믿음을 지니고, 자기 내면의 특징을 알아내고, 그에 부합하여, 타인과 어울리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인류학자 Geertz(1975, p.48)는 다른 문화의 주체성과 비교하여 서구인의 주체성을 “자신만의 개성과 동기와 관점을 통합적으로 갖춘 세계로서, 자기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및 타인에 대하여 자의식과 정서, 판단을 역동적으로 해가는 존재”⁷⁾로 특

징되고 있다. 개인주의라고 통칭되는 서구인의 인간관은 지난 세기말부터는 뚜렷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Mohd, 1987). 이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자유, 자기충만성(self-sufficiency)을 강조하며, 그 핵심은 개인이 생활의 주체이고 단위라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오랫동안 가족을 기본 생활단위로 유지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이웃에 거주하면서 친족 중심의 사회생활을 영위했다. 친족내 협력과 종족간 경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집단주의적 생활/가치를 갖추게 되었다. 고대 서양 사회에서는 4촌을 포함한 근친 간의 결혼은 물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고, 이런 결혼 관행이 농업 위주의 생산활동을 펴는 사회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친족 집단주의 성격으로 나타났다(Siedentop, 2014). 바다를 낀 지중해 연안에서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상업적인 교역이 활발했던 고대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철학과 주장들을 논의하였고,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사고도 교육되던 시절이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의 삶이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인식도 일찍 나타나 이미 개인을 함축하는 말들(privilegium 등)이 쓰이고 있었다(Lee, 2017). 스토아학파의 대부로 여겨진 헤라클레이토스(BC 535~475)는 “인간의 성격이 운명이다”라면서 각자의 삶이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여겼다(임철규, 2004,

7) “a bounded, unique, more or less integrated motivational and cognitive universe, a dynamic center of awareness, emotion, judgment, and action organized into a distinctive whole and set contrastively both

against other such wholes and against a social and natural background”

375쪽 재인용).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런 개체의 욕망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볼 수 있다.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는 출생시에 아버지인 우라노스에게 잡아먹힐 뻔하였지만, 결국 아버지와 전쟁을 벌려 왕이 되고, 욕구가 동하는 대로 신, 인간, 동물을 가리지 않고 겁탈하는 행위들을 벌이지만 도덕적으로 지탄 받지 않는다. 즉 개인의 욕망에 맞서는 집단, 국가의 도덕이나 규범이 없었다는 것이다⁸⁾.

개인주의를 심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검토한 심리학자 Henrich(2020)는 로마 교황청의 근친결혼 금령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6세기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이중결혼, 이혼, 근친결혼을 금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인구의 1/3이 죽임을 당하자,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지역에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 농노들은 돈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어 자영농을 하거나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각종 산업생산에 종사하게 되었다. 아울러, 16세기에 개신교의 도전에 직면해 가톨릭교에서 자정 운동과 개혁적 운동이 나타나면서 6촌 이내의 친족 간의 결혼을 엄히 금하였다. 이 금령이 엄하게 시행되자 사람들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도 도시로 이

동하여 먼 친척, 모르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가꾸고, 능력을 키우며, 남에게 자신을 알리는 개인화 작업이 중요하게 되었다(Henrich, 2020).

낯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갈등이 증가하자, 사람들은 이질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범과 규칙들을 만들어 가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의 규범으로 수용된다⁹⁾. 낯선 이들의 분배에 적용되는 공평성의 규범, 성실함과 정직함의 가치, 협동정신, 속마음 보다는 드러난 행동의 중시 등이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화를 가속시키며,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치제도를 만들어 갔다¹⁰⁾. 이런 제도가 개인주의적 심리를 더욱 심화 확대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강했던 친족집단의 힘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상업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조합과 같은 기술자 및 학자 등의 자발적인 결사체의 활동이 증가하며, 노동의 분업화, 개인화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Cohen, 2015; Henrich, 2020; Schulz, 2019).

8)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양정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유교에서는 중용, 도교에서는 무위(無爲), 불교에서는 해탈을 지향할 삶의 정신으로 제시하면서, 개인의 욕망에서 오는 갈등을 무력화시켰다. 고대 동아시아와 중근동(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국가들에서 “개인은 집단적 삶 속의 한 ‘참여자’였으며, 한 개인으로서 개체의식이나 자의식 등은 집단적인 삶 속에 함몰되어 있었다... 개인 행위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는 상관없이 집단이 요구한 행위의 규범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었다”(임철규, 2004, 377쪽).

9) 서기 8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유럽에서는 만 명의 인구가 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배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중국에서는 그런 증가가 없었다. 이슬람에서는 두 배 증가하였을 뿐이다(Henrich, 2020, p.449쪽).

10) 친족관계를 떠나 교회가 관장하는 결혼제도를 따르는 역사가 오래된 이탈리아의 지역들에서 성원들의 민주주의적 정부형태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enrich, 2020, 412쪽) 이런 양상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4촌간의 결혼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정부체제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Schulz, 2019, Henrich, 2020 pp.412-3에서 인용)

자유주의

개인을 사회 및 그 제도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서구의 오래된 정치철학이다. 이 철학은 16~17세기에 진행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을 통해서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서양사회에 수용되면서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시민 정신으로 전개되었다. 서구 자유주의의 시원과 정착을 다룬 정치철학자(Siedentop, 2014)는 사도 바울이 민족 종교이던 유대교를 민족을 넘어선 종교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한다. 이 전환에는 사람들이 출신, 신분, 남녀를 넘어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사상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신과 하나됨을 선택하고, 신의 의지를 받들어 영혼의 삶을 위해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결정을 한다. 바울은 신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을 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인간이 타고나는 불평등을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르친다(99쪽). 이런 사상이 현대의 자유주의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중세를 벗어나는 근대학문의 여명기에 계몽사상가들은 인간 이성의 힘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새롭게 규정하였다(Deneem, 2018). 홉스(T. Hobbes, 1588~1679)와 로크(J. Locke, 1632~1704)는 모두 자연 상태의 개인들을 공동체의 부분이 아니라 동떨어진 개체적 존재로 여겼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심지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를 정부와 법의 규제가 없는 “모든 것이 권리”인 상태로 보았다. 고대에는 유능한 자치정부를 통해서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이 시

기의 자유는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추구하고 충족하는 것이다. 홉스와 로크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더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기성의 권위로부터 해방되는 것, 임의적인 문화와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 과학의 발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전래의 기독교적인 자유관을 약화시키고, 뿌리박힌 전통과 관행을 해체하고, 개인을 독립적 존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보호장치라며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였다(Deneem, 2018, pp. 51-52).

자유주의의 역사를 연구한 사학자 노명식(2011)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원은 개인주의라고 지적한다(41쪽).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권리는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개인주의의 현실적 구현과 심화는 자유주의라는 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원래 자유는 구속이나 압제, 관습에 매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런 좁은 의미를 벗어나서, 오늘날 자유는 능력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고, 심지어 성별 정체성의 제약과 구속마저 넘어서는 완전한 자유 상태를 꿈꾸고 현실화시키려는 사상으로 변모하여 작용하고 있다(Deneem, 2018).¹¹⁾ 자유주의

11) 자유주의는 개인이 장소, 전통, 문화 및 개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관계의 제약으로부터 얼마나 해방되었는가에 근거해 자유주의의 진보를 평가한다(Deneem, 2018, p. 77).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해방을 약속하고, 국가의 지원을

적 인간관은 욕망이 개인을 움직이게 한다고 보았다.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활동한다. 욕망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불변의 인간성이며, 도덕도 이 욕망에 적응한다. 따라서 욕망은 좋은 것이다. 이런 욕망관이 자유주의 경제의 전제가 되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친다(노명식, 2011, p. 50; Deneem, 2018, pp. 48-49).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한 사회계약론적 사회관은 현대심리학에서 사회교류 현상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교환론(Kelley & Thibaut, 1978)으로 발전하였다(조공호, 2012, 4장., 2021b, pp. 338~372).

행복의 추구

자신에게 무제한으로 허용된 자유를 갖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에게 행복한 삶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행복한 삶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두 가지 입장이 내려오고 있다. 쾌락주의적 입장(hedonism)은 즐거움, 기쁨, 안락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한편, 가치론적 입장(eudamonism)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자기성장과 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행복한 삶이라 본다¹²⁾. 지난 20-30년간 행

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붓물 터지듯이 이루어졌다. 널리 알려진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념으로 다루어진 행복은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으로 측정되고 있다(Diener, 1984, 1994).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포괄적이어서 가치론적 행복과 쾌락적 행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 혹은 삶의 만족감을 가치론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쾌락주의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Baptista et al., 2016; Delle Fabe et al., 2011). 이러한 양상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돈, 집 등의 물질적 요소를 가장 많이 드는 현상들에서도 볼 수 있다.

행복에 쏠리는 관심

행복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확연히 증가하였다. 구글에서 행복(happiness)을 검색하면 7500만 개의 자료가 올라오고, 아마존 책방에는 4만 개가 넘는 책의 제목에 행복이란 단어가 나타난다(Cregoire, 2014). 1990년대에 긍정심리학의 출현과 빠른 확산도 이 현상을 대변한다¹³⁾. 학문분야도 다양해져서 심리학은 물론 신경과학, 의학, 유전학, 경제학, 노인학, 건강학, 복지학 등에서 행복이 활발히 다루어진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쾌락주의적 행복보다 가치론적 행복이 더 중요하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는 듯하지만, 현실을 보면 가치론적

받는 자연과학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실질적인 해방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래서 국가주의와 개인주의는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제도와 자연에 대한 존중심은 줄어든다.(Deneem, 2018)

12) 이 두 가지 행복한 삶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깊은 논의는 Waterman(1993)을 참고 바람. 이 둘의 차이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뚜렷하지만 실제

로는 중첩적으로 작용한다(Kushdan, Biswas-Diener, & King, 2008)

13) 2000년에 행복연구학술지(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6년에 긍정심리학연구지(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가 창간되어 행복에 대한 큰 관심을 볼 수 있다.

관점보다는 쾌락적 관점이 행복에 대한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치나 덕을 추구하는 생활에서 맛보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 개인적인 갈망의 해소와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행복의 의미 변화

행복이란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탐구한 역사학자 McMahan(2006, 2013)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복이란 신의 선물이며 사람이 어찌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흔히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Eudaimonia란 용어는 '좋다(eu)'와 '신령(daimon)'이 결합된 말로 '좋은 신' 혹은 '신의 좋은 뜻'을 받게 된 상태라는 것이다. 행복이란 영어표현 Happiness에도 우연 혹은 요행이란 의미의 접두사(hap)가 들어 있어, 14세기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행복에 대하여 그리스인처럼 신의 관여영역으로 여긴 것을 볼 수 있다(<https://www.etymonline.com/word/happy>). 우리말에서도 행복의 '행(幸)'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원전 45세기 경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위시한 스토아학파의 시절에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권장하며, 유테모니아를 철학적 사고와 도덕적인 활동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를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행복은 도덕적인 영혼의 활동이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생활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Ryff & Singer, 2008). 중세의 기독교신학에서는 행복을 죽음 후에나 찾아오는 것으로 여겨 이승에서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겼다¹⁴⁾.

그러나 18세기 때부터 사람들은 행복을 쾌

락적인 느낌과 정서로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환에는 공리(功利)주의 사상이 큰 역할을 하였다. 벤담(J. Bentham 1748~1832)과 밀(J. S. Mill 1806~1873) 같은 영국의 철학자들이 공리주의를 옹호하면서 사람들에게 현실 삶의 가치와 도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효용의 크기("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중시하는 사조가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¹⁵⁾. 계몽사상가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스스로 행복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쓸 때 행복추구권을 자연법적인 권리인 생존과 자유와 함께 명시했다(탁석산, 2013).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우리에게

14) 성 오거스틴은 "신의 도시"에서 진정한 행복은 현생에서는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이 저지른 원죄 탓에, 인간은 사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운 것이 운명이라고 했다(McMahan, 2013). 물론 성경 전도서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승의 삶을 즐기는 것이 창조주의 선물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나오고,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은 행복과 맑은 정신은 신의 자비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하였지만, 중세는 인간이 신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시대였다.

15) 벤담은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즐거움이란 두 가지 주인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이 둘이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효용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행복한 사회를 이성과 제도에 의해 짜야 한다." 어떻게 쾌락을 측정할 것인가를 고민한 벤담은 강도, 지속시간, 확실성, 근접성, 순수성, 수확성(fecundity) 차원에서 쾌락의 정도를 측정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쾌락의 주관적 특징, 즉 나에게 쾌락이 다른 이에게 고통일 수 있다는 문제에 봉착하여 뉴턴의 물리학에서의 수식을 행복방정식이 따라갈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McMahan, 2006, p. 219).

도 헌법에 쓰인 자연권이 되었다. 쾌락적 행복을 중시하는 현상은 연구자들이 행복감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주관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방식에서는 모두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처럼 기간을 특정하여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의 빈도를 측정하는데, 이런 정서의 변화는 단기간에도 출렁거리는 쾌락적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종교의 쇠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행복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2019년에 영국에서 청년층(16~29세)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는 89%가 삶의 의미나 목표가 없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이 순간을 즐겁게 살자는 설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UN 및 여러 선진국에서 국민들의 행복감을 조사하여 발표할 정도로 행복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급기야 경제성장 지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Schultz, 2017). 이렇게 사회적 차원의 행복을 다룰 때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의 안락한 삶에 더해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자연, 높은 대인 신뢰감, 전통에 대한 긍지와 보존이 높히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개인들이 추구하

는 행복은 주관적이며, 감각적 쾌락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주체성의 과잉 증상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이 최고의 가치로 작용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한 이후 사람들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졌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전개되고 있다(강수돌, 2020). 소수의 사람이 원하는 성취를 얻어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며, 계층 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드러나는 격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실을 수용하고, 그에 걸맞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풀리고 정당화시키며,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주체성 과잉 현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회 현상으로 행복강박증과 자기애성향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행복강박증

현대인들은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며 일상을 살아간다(Dworkin, 2006).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장수하며, 주위에 행복을 전파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4; 박상규, 조혜선, 2018;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Post, 2005).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할 수 없어, 내 삶이 잘못되었나?’하는 불안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다. 이런 불안을 떨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하려 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면서 겪는 불행한 일, 속이 상하는 일, 고민스러

16) 응답자들의 1%만이 영국성공회의 교인으로 나타났다

https://www.breitbart.com/europe/2019/08/02/poll-9-10-young-britons-believe-their-lives-have-no-purpose/?fbclid=IwAR3rfE49fQxmgD5f3lN9rhg1GFpw5OqFKlNwh6V7osr1H0NjFmGZw_y4JNQ

운 일 등으로 불안과 우울, 때로는 초조해지는 느낌은 정상적인 일이다. 이런 느낌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문제가 있다는 몸의 신호일 뿐이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신호를 꺼버리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맛보는 인위적인 행복감으로 문제를 덮어버린다. 즉 항우울제 같은 약물, 엔돌핀을 생성한다는 운동, 명상 등의 처방을 통해서 불행감을 벗어난다(Dworkin, 2006)¹⁷⁾. 가능하다면 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아이들의 양육에서도 작용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불안감이나 걱정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문가들이 즉각 개입한다.

신이 사라지고, 개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목적이 된 사회에서 삶의 의미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잘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잘살아야 한다는 것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변화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뇌과학 연구도 큰 몫을 하였다. 뇌과학자들은 행복을 신경전달물질과 신경망의 작용으로 이해시킨다. 즐거운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이 보상이라서 작용하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망의 활성화 강도를 높여서 긍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해지는 행복한 뇌를 만든다는 것이다(Hanson,

17) 행복은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배태시켰다. 명상, 미용, 안마, 운동, 요가, 무용 분야의 전문가와 영양사, 반려동물 훈련사 등의 손에서 행복은 의미가 아니라 기술(skills)이 되었다. 이 산업의 규모는 근자에 폭증하였다. 한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건강의료 분야 지출(7.8조 달러)의 50%가 넘는 4.5조 달러에 달한다.

<https://globalwellnessinstitute.org/press-room/statistics-and-facts/>

2009).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거창한 의미와 큰 행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매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단순하고, 작은 사건들을 즐기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소위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은 익숙했던 수많은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만든다.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보다는 현재의 소확행을 실천하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한다. 행복을 강박 당하면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교적 손쉬운 수많은 해결책을 제공받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요즘 인기있는 명상이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안타깝고, 우울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 탓일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뉴스를 자주 보면서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못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함과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적 행복이 사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행복강박증 탓에 사회에 퍼져가는 긍정주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면을 보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비평가인 에런라이크(2011)가 비판하듯이 긍정주의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명상을 배워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현실문제에서 초탈할 수 있을지언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욕망이 강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되는가? 행복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uss, Tamir, Anderson, & Savino, 2011). 행복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서구인들이 성취나 성공과 같은 외적 조건의 충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나 소확행적인 활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탓에, 외로움을 더 느낀다. 이들은 행복한 상태에 대해 지닌 기대감이 높아서 실제 경험하는 행복감이 이에 못 미치는 탓에 실망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Mauss et al., 2011). 쾌락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 경향성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며, 눈앞의 목표를 위해서 비윤리적 행위(시험 부정 등)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ui, Shen, Hommey, & Ma, 2021). 개인의 주체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경우에 우려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행복은 거의 종교가 되었지만, 사회가 보이는 여러 지표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교도소 수감자 비율이 세계 최고이고, 소득의 불평등 수준도 매우 높고, 총기 폭력에 의한 사망자, 마약 사용자의 증가, 개인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에런라이크, 2011, 27쪽). 한국 사회도 이를 닮아가고 있다.

자기에성향 증가

전세계적으로 개인주의 풍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사회이다. 이런 미국에서도 개인주의 경향이 지난 삼십 년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다(Twenge & Campbell, 2009). 1966년~2009년 기간에 매년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총 9백만 명)들을 대상으로 18가지 특성(성취욕, 수학능력, 웅변력, 창의력, 신체건강, 리더쉽, 자신감, 작문력, 공감력 등등)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지 혹은 떨어지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의 추이를 보

면, 해가 갈수록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주체적 특성(학업능력, 예술적 역량, 성취욕, 리더쉽, 발표력, 지적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뚜렷하고, 공감력, 어울림성의 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Twenge, Campbell, & Gentile, 2012).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우월하다고 여기지만, 이 기간에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학력은 더 낮아졌으며, 일주일에 6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도 현저히 줄었다. 이는 사람들의 자기고양적 인식이 실제로 학업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실력이 향상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싶다는 욕망(즉 자기애)이 발현된 탓이다(Twenge & Campbell, 2009).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서 칭찬받기를 즐겨워하며, 상대적인 우월감을 즐긴다(Baumeister & Vohs, 2001).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약해서,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탓에 기존의 관계에 더욱 집착하는 양상을 보인다(Bushman, Bonacci, Van Dijk, & Baumeister, 2003).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 약물을 하거나, 과도하게 일에 몰입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스스로가 남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여기며(Campbell, Bonacci, Shelton, Exline, & Bushman, 2004), 이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과시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Rucker & Galinsky, 2008, 2009).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전개되는 무한경쟁의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강수돌, 2020). 이

런 불안에 대한 무의식적 대응책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작동하여, 자기에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사회계층에서 상층에 속한 사람들이 하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자기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미국(Piff, 2014)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Cai, Kwan, & Sedikides, 2012). 국내 대학생들도 자기에 성향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자기에성향의 증가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멀어진 거리를 정당화시키면서, 사회 성원들간의 결속을 저해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주체성 과잉이 가져오는 사회의 병리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주체성 과잉에 대한 소결

인류의 진화사에서 자의식 능력의 출현은 정착사회로 들어선 이래 인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서구 문명의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에 대한 인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신화, 전염병, 교권의 강화, 교역의 활성화 등)들에 의해서 활발해진 낯선 이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규범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왔다. 특히 개인주의 사상은 계몽시대에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하는 자유주의 철학과 접합하면서 서구인들에게 개인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생활을 전개하게 만들었다. 개인주의 사상은 18세기 유럽에서 전개된 산업혁명 이후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 전략에 따라 아시아권의 나라들에 보급되고 이식되면서 전 세계인의 생활철학이 되어 가고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이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주체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펼쳐 갈 권리가 있다는 개인주의 사상은

주체성의 과잉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관계에서의 소외, 약물 오남용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이에 해당되지만 본고에서는 행복 강박증과 자기에성향의 심화 증상을 짚어 보았다. 이런 주체성 과잉 증상은 인간실존의 한 측면인 저마다 따로 삶을 꾸려가는 존재라는 면에 방점을 둔 인간관이 자유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으며 계속 심화되며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실존의 또 다른 측면인 어울림성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 없다(Bakan, 1966).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서구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인격 발달, 즉 성숙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성숙의 지향 방향에 대해서 1960~80년대 활발한 논의가 자기실현과 자기초월의 두 개념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최근에 노령인구의 급증, 생태계 위기의식이 주목받으면서, 새롭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실현과 자기초월

‘자기 self’란 주체는 미국 심리학의 형성기에 큰 영향을 준 제임스(W. James, 1842-1910)에 의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나,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이 심리학계의 주류로 수용되던 때는 뒷방 신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학계에 인본주의 학풍이 불면서 인간의 성격발달, 사회생활의 이해를 위해 핵심개념으로 복원되었다(Baumeister, 1999; Leary, 2004). 대표적인 학자는 에릭슨과 마슬로우, 레빈저 등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를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관장하는 중심체계로 보았다”(Buhler, 1964). 이들이 제시한 자기실현이란 개념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자 자세로 인식되면서

널리 수용되었고, 주체의 부풀림을 더욱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자기실현을 다루는 이론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기초월을 다룬 이론을 살펴보자.

자기실현

자기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에릭슨(E. Erikson, 1902-1994)은 프로이트 학파로서 성격 특징에 무의식적 심리 역동이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프로이트와는 달리 성장과정에서 만나는 현실 환경과의 교류에서 자아(ego)의 의식적인 활동과 그 결과가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건강한 성격의 발달 과정을 8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형성되는 성격의 특징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성격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Erikson, 1959). 그에게 자기정체성은 정신건강의 핵심이었다. 자기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애 각 단계에서 신체변화와 사회 환경적인 변화로 마주치는 중요한 생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건강한 삶에 필요한 역량과 성격 특성을 갖추어 가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희망, 의지, 삶의 목적, 역량감, 원칙에의 충실성, 사랑, 돌봄 그리고 지혜로움을 갖추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회한 없는 삶이었다는 느낌으로 멀지 않은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을 잘못 살아왔다는 절망감에 죽음을 두려워 한다.

레빈저의 자아발달이론

에릭슨의 학생이었던 레빈저(J. Loevinger

1918-2008)는 에릭슨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9 단계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Loevinger, 1976).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성격검사 도구를 제작하여 많은 연구를 촉발하였다(Loevinger & Wessler, 1970). 여기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성인 후기에 겪는 마지막 3단계이다. 이 단계들은 모두 마슬로우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실현 단계에 해당된다(Hartman & Zimberoff, 2008). 제7단계인 개인화 단계에서는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내적 경험의 변화에 민감한 관심을 보인다. 제8단계인 자율성 단계에서는 삶의 다각적인 복잡성에 눈을 뜨고, 불확실성을 더욱 수용하며, 갈등도 이런 복잡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모든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적임을 깨닫게 된다.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준거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 대한 통찰과 수용은 물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마지막 9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인류애적 관심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과 지혜로움을 찾는다. 내면의 갈등을 관조하며, 통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실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오직 10% 정도의 성인만이 마지막 단계의 특징을 보인다고 추정된다(Cook-Greuter, 2000).

마슬로우의 자기실현론

마슬로우(W. Maslow 1908-1970)는 널리 알려진 욕구위계설에서(Maslow, 1943), 인간은 생물학적인 욕구(생존과 안전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소속과 사랑 및 인정)의 충족을 지향하며, 이것이 충족되면 자기실현의 욕구 충족을 지향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자기

실현이란 용어가 널리 수용되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의 삶은 목표(telos; goal)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자신이 지닌 역량, 특성, 가치에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실현의 삶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주요한 욕구를 본능적(instinctiod) 이라고 보았고, 고차원의 생활, 영적인 생활도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바탕한다고 보았다(1966). Maslow(1971)는 자기실현자의 모습이 매우 개인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자신의 내면에 지닌 역량, 자질을 최대로 구현하는 것이 자기실현의 목표이지만, 자기실현은 동시에 보편적인 존재가치(Being-values: 진리, 선함, 아름다움, 정의 등)가 구현되는 과정으로 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실현을 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마슬로우는 이들이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며,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된 상태에서 존재가치를 지향하는 활동과 생각에 몰입해서 자기 밖 세상의 요구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일への 소명감, 진리, 선, 미, 정의, 일체감(oneness), 완벽성, 질서의 이해(comprehensiveness), 영성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가치들과 그에 대한 추구 욕구를 마슬로우는 메타욕구라고 칭하였다. 메타욕구가 발현되는 생활에서는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별 의미가 없다. 이 메타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삶의 허망함, 실존적 공허감, 회의론, 실존적 신경병, 무가치 등과 같은 메타질환(meta pathologies)을 앓는다(Maslow, 1971).

마슬로우는 타계하기 전에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차상위로 발현되는 욕구로 자기초월 욕구를 상정하였다(Hartman & Zimberoff, 2008; Koltko-Rivera, 2006, p. 306). 자기초월 욕구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훨

씬 큰 존재를 느끼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 에릭슨, 레빈저, 마슬로우 모두 자기실현적 삶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충실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벗어난 공동체, 인류, 생태계에 대한 동일시 및 이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넘어 자기초월성을 성숙의 궁극적인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메타욕구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며, 마슬로우의 자기실현론은 자기의 역량과 품성에 충실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각인되면서, 주체성 추구하고 그로 인한 과잉을 초래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본다. 주체성 과잉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론이 자기확장 이론이다.

자기확장 이론

자기실현론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주체성 강화를 중요한 동기로 여기는 이론으로 자기확장론(self-expansion theory: Aron & Aron, 1986, 1996)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역량과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동기를 타고나며, 생활하면서 세운 목표를 추구하면서 유용하다고 볼 새로운 자원, 관점, 정체성을 배우고 획득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내적인 만족감을 얻고 성장한다. 자기확장 동기가 촉발될 때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의 교류기회를 즐기며, 교류내용도 풍성해지고, 교류 후에 자신도 성장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Dys-Steenbergen, Wright, & Arthur, 2016). 타인과의 관계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자기확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tingly & Lewandowski, 2014). 마슬로우는 동기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보았고, 자기확

장이론도 이를 수용한다. 자기확장이론이 마슬로우의 동기론과 다른 점은 기본동기가 충족되어야만 자기확장 동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도 다른 동기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기초월

앞에서 살폈듯이 자기실현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몸이 지닌 역량과 특징을 충실하게 표출하며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주체는 생물학적인 몸과 그에 딸린 마음에 있다. 자기실현의 성숙한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기와 타인 및 사물들과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이 이들과 일체가 되는 느낌에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James, 1890; Maslow, 1966). 이런 경지가 자기초월의 경지이다. 이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짧지 않지만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긴 탓에 주류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Kaufman, 2020; Yaden, Haidt, Hood, Vago, & Newberg, 2017). 자기초월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게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삶의 의미 구성으로서의 자기초월

자기초월적 접근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정신의학자 프랑클(V. Frankl, 1905~1997)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영성, 자유, 책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현실과의 관계맺음에 있으며, 자신을 제약하는 외적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현실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삶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신이 처한 조건을 초월하여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자기초월의 본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 본성을 추동(drive)처럼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구비해 갖고 있다고는 여기지 않았다. 추동은 배고픔 동기처럼 배고프면 나타나고, 배부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내부에서 발생해서 유기체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만, 의미추구는 지향하는 노력이며, 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을 요구한다(Frankl, 1966, p. 100).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감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며, 의미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현실과 이상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 존재하는 나("I am")와 지향하는 나("I ought")의 긴장관계에서 의미가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초월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진정성(authenticity)이 결여된 것이다. 프랑클에게 자기실현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의미를 강조하는 탓에 프랑클은 심리학의 환원론적 접근을 개탄한다. "환원론적 접근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가치와 의미를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가치를 방어기제로 해석하고, 철학마저도 억압된 성욕의 승화된 작업이라고 해석하는 현실에서!" 그는 실존적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에서 성욕은 실존적 공허의 문제로부터 손쉽게 탈출하는 수단과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라 보았다 (Frankl, 1965)¹⁸.

18)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자기의 삶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무관심과 지루함,

프랑클에게 자기초월이란 개인이 지닌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함께 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목적과 의미를 확연히 깨닫는 것이다. 쾌락이나 즐거움, 자기실현은 의미를 구현하는 의도적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일 뿐이다. 자기실현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자기초월과 모순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서은국, 2014)과 마찬가지로, 자기실현은 삶의 의미에 충실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Frankl, 1966). 현실의 외부적 제약이나 신체의 조건을 초월해서 주위에서 함께 하는 것들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자기 삶의 목적성과 의미를 깨닫고, 진선미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초월자들이 느끼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자기초월은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개인마다 독특할 수밖에 없으며, 환원론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최근에 캐나다의 중국계 심리학자인 Wong(2011, 2016)은 프랑클의 자기초월을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의지로 개념화하여 삶의 고통과 역경이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확인하고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쾌락지향적 긍정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의미에 대한 의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¹⁹⁾를 제작하여, 코비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퍼지고 있다. 실존적 공허함이 오늘의 대중적 신경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슬로우가 말하는 절정경험과는 반대되는 이 실존적 공허를 프랑클은 "심연의 경험 abyss-experiences" 이라고 말한다(Frankl, 1965).

19) 문항의 예: '나는 나 자신 보다 큰 존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 있다.' '나는 죽어서 다른 이들을 돌봐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드-19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의지가 심리적 고통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Wong, Aslan, Bowers, Peacock, Kjell, Ivtzan, & Lomas, 2021).

자기의 경계 확장으로서 자기초월

프랑클이 자기초월이란 용어로 현실의 제약을 초월해서 자신이 관계를 맺는 대상과 상황에서 끌어내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를 글자 그대로 현재의 자기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자기범주를 확장시키고, 이런 확장을 통해서 자기를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즉 몸 안에 갇혀 있는 좁은 자기에서 벗어나, 자신과 주위의 것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치며 지혜로 위치는 성숙의 의미로 자기초월을 제시한다(Levenson, Aldwin, & Cupertino, 2001). 이런 식의 자기초월에 대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탓에 연구자 나름으로 척도를 구성해서 경험적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자기초월 경험을 이해해 가고 있다.

Reed(1991)는 자기초월을 생애발달의 성숙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즉, 성숙이란 자신과 주위의 연결성을 깨닫고, 이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스스로가 좁게 규정했던 자신을 확장시키는 정도(부인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내부로 확장하고, 타인 및 외부의 것들과 연결성을 깨달아 외부로 자신을 확장함),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차원을 인정하는 정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에서 현재 상태를 새롭게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자기초월 척도를 구성하였다(Reed, 2009). 미국에서 심각한 질환으

다.' 등등

로 죽음을 당연하고 있는 노인들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 척도를 정신건강 척도 및 자아존중감 척도와 시행한 결과, 자기초월적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정서의 유지, 낮은 우울감, 삶의 통합적 이해, 죽음의 수용 등 정신건강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Coward, 1996, 1998). 자기초월성이 자칫 삶에 대한 소외나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자기초월성과 소외성을 재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자기초월성 척도²⁰⁾를, 오요인 성격유형과 비교한 연구결과, 자기초월성은 경험에의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신경증과는 역상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들 관계성이 그다지 깊지 않다는 것은 자기초월성이 단순히 긍정적인 성격 특성에 그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Levenson, Jennings, Aldwin, & Shiraishi, 2005). 자기초월성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가 보다 큰 존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키워간다는 의미이므로 주체성의 과잉 현상을 초래하거나 방조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 **자기초월 문항 사례:** 내 평정심은 이전처럼 번덕을 부리지 않는다. 나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나는 적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느낀다. 나는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즐긴다. 나의 개인적인 삶은 보다 큰 전체의 한 쪽임을 느낀다. 나는 내 선조와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나의 평가에 관심이 적어졌다. 사는 것이 더 즐겁다. **소외 문항 사례:** 더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낀다. 삶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덜 낙관적이 되었다.

자기실현/초월론과 주체성 과잉의 소결

자기실현과 관련된 이론들은 삶을 자기실현시킬 무대로 보고, 그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과 특성에 충실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의 모습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한다. 한편, 자기초월 이론들은 프랑클처럼 현실의 제약에 얽매이지 말고, 실존적 삶 전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에 이끌리는 삶을 제시하거나, 자기라는 경계에 갇혀 있지 말고, 어울리는 대상과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여,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여 지혜로워지는 성숙의 한 과정으로 제시한다. 두 가지 접근은 성숙의 지향점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자기실현 및 자기초월 경향성을 파악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소수의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두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이 서로 관계성이 많은 것을 보이고 있다($r = .39 \sim .50$; Phillips, Watjubsam & Noll, 1974). 이 연구는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인 연구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자기실현자와 자기초월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자질에 충실하게 삶을 사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기실현과 자기초월은 발달과정에서 시점을 달리하여 작용하는 특징으로 여길 수도 있다. 즉 자기실현은 정체성을 찾아가고, 역량을 쌓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청장년기에 주로 작용하는 동기이며, 자기초월은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삶을 관조하며, 삶의 의미를 갈무리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동기로 볼 수 있다(Kaufman, 2020). 자기실현의 높은 단계에서 메타욕구가 발현되는 상태에서는 자기와 세상의 구분이 지닌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자기실현과 자기초월은 궁극적 수준에서 개인의 주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 이 경지에서라면 주체성 과잉을 조절하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성 과잉의 조절

인류사회는 주체성이 과도히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각 사회 나름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모색하는 활동을 펴왔다. 이런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성숙과정의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직한 주체성에 대한 논의 및 관점 제기이다.

성숙: 주체성 과잉을 막기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남에게 저촉되지 않는 한 자기 입맛대로 살도록 허용되거나, 심지어 권장된다면 아이는 주체성이 부풀려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커가도록 그냥 두지는 않았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 여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 혹은 인격을 갖추어 가며, 주체성이 과도히 부풀려지지 않도록 한다. 즉, 아이가 커 가면서 어른이 되어가기를 요구한다. 어른, 즉 성숙한 사람은 사태에 접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준거를 고려하며, 주위 사람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냥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

성숙을 보는 관점의 문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는 관점에는 흥미로운 문화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아이가 타고난 자질과 성품이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과제와의 씨름을 통해서 풀려 나오면서, 성격과 능력, 가치의 개인적 특징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여긴다. 피아제(J. Piaget 1896-1980)는 사고능력이 풀려나오는 과정을 4단계 인지발달 이론으로 체계화시켰고, 콜버그(L. Kohlberg 1927-1987)는 인지능력의 발달에 바탕하여 도덕적 판단능력이 풀려나와 갖추어지는 과정을 도덕성 발달이론으로 체계화시켰으며, 마슬로우는 생물학적 연원을 가진 동기가 성장과정에서 풀려나는 과정을 욕구위계설로 제시하였다. 가장 포괄적으로 인격발달을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이론이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발달이론이다.

한편, 우리 사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배우고 관심의 대상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나이가 찬다고 해서 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행동을 보여야 어른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이 또는 소인배 취급을 당하였다. 유학사상을 현대 심리학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 사회심리학자 조궁호(2017, 2021a, 2021b)는 유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군자)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몰입적이며 미숙한 소인의 상태에서 탈피하여, 타인중심적이며 사회지향적인 성숙한 군자의 상태로 존재 확대를 이룬 사람”이라고 풀고 있다(2021b, 54 쪽). 모든 어른이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수양과 절제의 노력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유학사상이 2500년 전에 중국 땅에서 살았던 공자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사상이지만, 그 사상에 담겨있는 이런 인간관은 그 전부터 중국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었기에 유학사상이 저항 없이 이 땅으로 넘어와 이식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성숙의 특징

성숙을 보는 관점에서 동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자기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 혹은 생태계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의 추구이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우선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 관점(egocentricity)에서 벗어나, 어울리는 상대방(이웃, 공동체, 인류 및 생태계 등)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태를 이해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서구의 학자들은 개인적 시야가 확대되어, 사회적 관심의 범위가 내집단, 내 나라를 넘어 보편적 인류에게로 확대되는 변화가 성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제시한다(Erikson 1959; Loewinger 1976). 유학에서 이상적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먼저 스스로를 다스리고(수신), 집안을 다스리고(제가), 연후에 나라를 다스리고(치국), 종국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치국)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상적 발달단계이다(조공호, 2021b, 323~325쪽). 성숙하다는 것은 사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를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통

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자기를 벗어나는 것은 현실 인식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한 관점을 취하는 역량은 지혜를 획득하는 선결 조건이다(Kramer, 2000).

삶의 의미 추구

성숙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다. 성숙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Baumeister, 1991). 우선 삶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때 현재 수행하는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상당수가 삶의 지향목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łażek, Kaźmierczak, & Besta, 2015). 다음은 그런 목표가 지닌 시간조망이다. 이 조망이 장기적인 경우에 단기적인 경우보다 더 의미 있다. 건물의 벽돌을 쌓고 있는 행위를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목표지향적 활동으로 볼 때 더 의미 있게 여겨진다. 또 다른 요인은 목표의 안정성이다. 다양한 생활의 목표가 생겼다 사라지고, 그 중요성도 부침을 거듭한다. 이렇게 중요성이 출렁거리는 목표보다 안정된 목표가 더 의미 있게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의 관련성이다. 효를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이를 반영하는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이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의미감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Baumeister, Voh, Aaker, & Garbinsky, 2012)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행복감은 현재지향성이며, 의미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지향성

이란 것, 행복감은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경험(taker)과 관련성이 높지만 의미감은 남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기여하는 경험(giver)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 좋지 않은 일이나 힘들었던 일의 경험, 걱정, 불안,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행복감을 떨구지만, 의미감을 높인다는 것, 지혜로움과 자기실현의 가치는 행복감과 무관하지만 의미감을 높인다는 것 등이다.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의미감을 모두 증진시키는 활동은 사람들과의 유대감 강화, 생산적 활동에의 종사, 지루하지 않은 생활의 영위 들이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생활은 두 가지를 모두 저하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이 지닌 효과는 의미성을 매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을 돕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기에 돕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만약에 남을 돕는 활동이 외적 요인 탓(강요되거나, 봉사점수를 따기 위한 경우처럼)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행복으로 가는 통로이다. 국내 대학생들에게서 행복추구보다 의미추구가 삶의 만족도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준, 김누리, 표정민, 김동진, & 박현린, 2020).

그러나 의미 있는 활동이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가치에 충실한 것이라면 주체성의 과잉을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심미적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에 몰입하는 것은 주체성의 향유로, 자칫 과잉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일상적 뜻으로서 ‘의미’가 매우 주관적이며, 자신만을 위한 헌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추구

대신 ‘보람’ 추구가 나올 것으로 본다. 보람은 자기 밖의 것에 헌신하거나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자신이 갖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주체성 과잉을 다스리기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대안 없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자기실현이 최고의 가치이고 관심사로 여겨지면 이는 종교가 될 수 있다. 이 종교에서는 자기에게 충실한 것이 올바른 것이고, 최고의 윤리가 된다. 1970년대에 미국심리학회장을 지낸 D. Campbell(1975)이 심리학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전승되어 온 도덕적 지혜보다는 자기만족을 원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보내는 이유이다. 근자에 심리학계에서도 주체성 과잉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대안적 모색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을 세 가지로 묶어 논의하겠다. 주체성의 확장, 주체성의 해체, 그리고 주체성의 전환이다.

주체성의 확장

주류 심리학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포용력과 역량의 증가라는 점에서 개인이 변하고 성숙하는 것을 다루는 것(Aron & Aron, 1996)과는 달리 Friedman(1983, 2018)은 영성 및 의식의 변형 상태(Altered states)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에서 자신을 둘러싼 것들과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주위 것들을 포함하는 주체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체성확장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체는 주체와 비주체의 경계에서 작용하는 기능성의 세계이며, 매우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크다. 주체는 세 수준에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수준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세계이다. 둘째는 개인초월(transpersonal) 수준으로, ‘지금-여기’에서 작용하는 주체의 경계를 넘어서 시간적(과거와 미래), 및 공간적(원자 수준으로 축소 및 지구, 우주 수준으로 확대)으로 주체가 확장될 수 있다. 셋째는 중간 수준으로 개인수준과 초월수준의 중간영역에서 자기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체가 주위 것들과 융합된 상태도 아니다. 이들 연구자들은 주체성 확장의 세 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²¹⁾를 개발(Friedman, 1983)하여 이 이론의 여러 측면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Friedman & MacDonalds, 2002; Papas & Friedman, 2007 등).

개인초월 심리학은 개인의 주체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주체로 포섭되어 주체가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인 및 자신의 경험에 국한시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둔 자기확장이론(Aron & Aron, 1996)과 차이가 나며, 4차산업혁명으로 전개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분신적(아바타) 정체성과 접목되며, 생태계의 모든 것들과 관련성을 맺는 생태계적 주체이론(Ecological self: Bragg, 1996; Mayer & Frantz, 2004; Naess, 1973, 2012; Narvaez, 2016)과도 닿아 있다. 이

이론이 다루는 현상들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다루기를 꺼려왔던 영성, 변형의식 등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를 물질적인 영역의 개념들로(공간, 시간, 확장, 축소 등)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²²⁾. 세 가지 방향성으로의 주체가 확장될 때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관심의 전환, 판단 준거의 변화 및 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주체성 확장이론이 주체성 과잉을 다스리는 효과에 대하여 심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메타주체성(metapersonal self) 이론은 생활 속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을 관조하면서, 자신의 본질범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류, 동물, 자연, 우주)들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수용하고, 그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갖고, 행동을 보이는 양상을 제시한다(DeCicco & Stroink, 2007). 즉 나는 모든 인류로 연결되어 있다가, 자연생태계의 존재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주체성을 채는 척도를²³⁾ 만들어서 관련된 개념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캐나다 대학생에게서 이 주체성이 높으면,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으며, 인종차별주의 양상을 보이지 않고, 불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성은 아울러 종교심이나,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인의 잘못

21) 항목은 모두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5점 척도상에 응답하게 한다. 사례는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개인수준), ‘내가 어렸을 때 행동들’(중간수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영향을 준 것들’(초월수준). 요가수행자와 자기초월심리학회원의 자기초월성 점수는 일반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1983).

22) 이런 주장이 2018년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한 학술지에서 기획한 “심리학의 다양한 쟁점”(heterodox issues in psychology)이란 특별호에 기고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심리학이 그 관심 영역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보여준다.

23) 항목의 예: ‘내가 무슨 일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우주에 속해 있고,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안다.’

을 용서하는 정도와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경향성은 개인차로서 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의 변화에 따라 강하게 또는 약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 주체성은 자신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관조하는 능력과 그에서 오는 깨침이 작용하므로, 주체성의 과잉 현상을 자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주체성확장이론은 자기초월론의 한 형태이다. 자기초월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관심의 초점은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보다 큰 존재(공동체, 인류, 생태계)에 대한 것으로서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Wong, Mayer, & Arslan, 2021). 현대심리학의 주춧돌을 놓은 James(1902)는 자기초월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주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상태에서 큰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Worth & Smith, 2021 재인용).

주체성의 해체 (무아적 주체성)

불가의 수행법에 바탕을 둔 명상이 널리 보급되면서 불가의 깨달음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불가의 중요한 깨달음은 사람들이 실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무상(無常; impermanence)한 것이고, 착각적 현상일 뿐이란 것이다(이중표, 2012 등). 따라서 자아가 허상일 뿐, 없다는 것(無我)을 깨달으면 고통의 주체도 사라지므로, 생노병사의 모든 고통이 해소된다는 것이다(Albahari, 2014). 최근에 동서의 대표적인 주체관을 대조하여 행복추구와 경험의 양상을 분석한 틀이 제기되었다(Dambrun & Ricard, 2011). 이 틀은 서구 심리학에서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기관을 자기중심적 주체관(self-centeredness)으로 명하고, 불가의 자기관을

무아적 주체관(selflessness)²⁴⁾으로 명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자기중심적 주체는 자신의 관점에서 사태를 접하며 판단하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인식하는 편향성을 보인다. 이 주체관에서 자신은 주위의 사람들과 별개의 독립적이며,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을 좋게 여기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기중심적인 정서 경험(질투, 분노, 자공심, 회열 등)을 많이 한다. 동기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기가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 성취지향적이고, 이용후생적 관심에서 자신의 복지와 즐거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사를 접하고, 해석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경향이 약하며(Cohen & Gunz, 2002), 자신의 관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을 보여 오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Cohen, Etsuko, & Leung, 2007). 지난 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사회인지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인지적 편향들을 보여주었는데, 자기중심적 주체관에서 작동하기 쉬운 것들이다(Greenwald, 1980; Kunda, 1999; Nisbett & Ross, 1980). 이런 주체관에서 주체성의 과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렵다.

자기중심적 주체관을 ‘만자기적(self-exclusive) 주체관이라 부를 수 있다(최봉영, 2021). 여기서 만자기(‘만인 나’)는 나만, 저만, 그만, 우리만에서 볼 수 있는 나, 저, 그, 우리 ‘~만’으로 닫혀 있는 자기를 말한다. 자기가

24) 이들 논문에서 무아적(selflessness)이란 표현은 자아가 망상일 뿐이며 늘상 변하며 연기할 뿐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실체는 있는 것으로 여기되 주위의 것들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도 포함한다.

세상의 주인이며, 자기만을 위해 제 입맛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재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들의 자기는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몸으로 닫힌 ‘나’이고, 둘째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된 내집단 즉 ‘작은 우리’의 갈래이다.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자기의 범주가 몸안의 ‘나’에서 가까운 ‘우리’로 확장되어진다. 만자기적 주체관에서 행위자의 관심사는 자기의 권리, 욕망, 목표달성, 행복추구에 있다. 만자기적 주체관에서는 현실의 윤리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달성에 장애가 된다면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오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조국 사태, 대장동 사태 등등)마저 부끄럼 없이 보이는 탈법적 행위들은 만자기적 주체관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한편, 불가의 무아적 주체관은 석가모니의 깨달음, 즉 자아는 실체가 없는 망상일 뿐이며 오직 연기할 뿐이라는 깨달음을 받아 들인다²⁵⁾. 주체를 이해하려는 많은 노력 중에서

25) 주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무아적 주체관은 얼핏 상식과는 어긋나고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다. 사람들의 인식작용과는 관계없이 물질세계가 존재하듯이 자신의 주체성도 의심할 바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최근의 뇌과학의 연구들은 인간의 의식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임을 보인다, 다만 그 단속적 작용의 간격이 짧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작용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Valera, Thomson, Rosch, 1991). 즉 주체 혹은 자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체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인식은 있다는 것이다. 비유로서 우유와 요구르트를 비교해 보는데서 항상성이란 상념일 뿐이란 것을 알

사회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사회구성론이다. 사회구성론이 준 통찰은 주체/자기가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과정에서 구성되는 구성체라는 것이다(Cooley, 1922; Mead, 1934). 이 구성체를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상을 자기라고 여기고, 그 욕구에 집착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자아(ego) 이다(이중표, 2012; Takahashi, 2000). 이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이 깨달음을 늘 인식하고 생활하기는 어렵다. 즉 자아가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사람의 심리가 대상을 실체화(entification) 함으로써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한 탓이다(Galin, 2003). 다만 연기성을 이해하고, 실체성이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늘 그러한 실체로 여김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어리석음을 문득문득 깨닫는다면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것이다.

무아적 주체관에서는 경계 지워진 주체를 고집하지 않고 주위의 것들과 함께 연결된 우리를 인식하므로 개별적 주체 중심의 쾌락원리가 아니라 우리성 주체로서의 어울림(principle of harmony)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한다. 이때 어울림의 주체는 내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모든 것들로 확장될 수 있다(그림 1). 어울림이란 전체의 다양한 부분(쪽)들이 함께 하는 상태이다. 주체가 무상하고 서로 연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쪽

수 있다. 우유는 끊임없이 유산균의 작용으로 요구르트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서 고정된 항상체는 없지만, 사람들은 우유는 우유로,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로 항상 있다가 어느 시점에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으로 여긴다. 모든 것은 주위 것들과 만나서 늘 생성 변화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들을 고정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이중표, 2018).

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자신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다른 쪽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생활의 주체로서 자기를 인식할 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편향을 보이며, 이기적 동기에서 행동을 취하지만, 자기는 주위 것들과의 어울리는 교류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일 뿐이며,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를 떠나 어울리는 전체 것들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연기적으로 연결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모든 것들로 확장될 수 있다.

온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는 이 연기적 연결성(박쥐-우한 시장과 주민-우한 여행자-교역국가-전 세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에 눈을 뜨게 되면 연결되는 대상에 대하여 연민과 자비심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연민이나 자비심과 같은 이타적 정서는 행위자의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Ricard, 2010; Sprecher & Fehr, 2006).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보상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탓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대함, 연민, 자비심은 내적인 힘, 평화로움, 충만감을 동반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진다(Ricard, 2006). 일반적인 사랑은 줄 때 되돌려 받음을 기대하지만, 자비심은 그냥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관점과 무아적 관점이 사람들의 행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Dambrun & Ricard, 2011). 지혜로운 미국의 노인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는 이들이 자기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의 평판보다는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실체가 아닌 현상으로서의 자기)에 더 귀를 기울이며, 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영성이 더 깊어지면서, 더욱 겸허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한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신에게 안식을 기도하고, 오지 않는 답을 간구하는 마음에서 겸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rdelt, 2008). 무아적 주체성은 주체성의 과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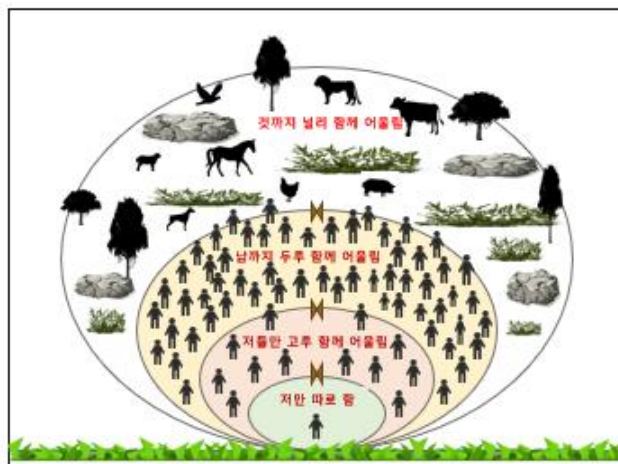


그림 1. 우리성 어울림의 4 범주

지니고 있다.

쪽으로서의 주체성 전환

사람은 저마다의 몸을 갖고 주위의 것들과 어울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만자기적(만인 나) 주체관은 저마다의 몸이라는 개체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개체는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주위의 다른 것들과 어울려서 그 특성이 구현된다. 단적인 예로, 물이라는 것도 주위의 대기 상태에 따라서 얼음, 수증기, 물로 형태가 바뀌어 존재함을 들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개체가 공동체와 맺는 관계의 양상도 개체와 전체의 양상과 쪽과 전체의 양상 두 가지가 구분된다. ‘나’와 가족의 관계를 들어 보자. 이때 가족은 성원들을 포함하는 전체, 즉 우리가 되며 나는 그를 이루는 한 부분(쪽)이다. 나는 개체로써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고, 개체가 아닌 쪽으로서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나의 개체성은 살아있고, 존중받아야 한다. 서구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집단과 집단주의의 성격은 이런 특징을 지닌다. 즉 개인이 집단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나의 개체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와 함께 어울린 우리로서 가치를 지닌다. 나는 이쪽으로, 상대는 저쪽으로 상호작용성(interactiveness)²⁶⁾을 지니면서 우리라는 전체를

구성하고 일이 진행된다(최봉영, 2021). 우리를 구성하는 각 쪽은 쪽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구실을 해야 한다. 따라서 쪽으로서의 주체성이 환기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쪽에서 전체를 보는 관점과 전체로써 사태를 보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개체보다는 전체의 기능과 그 보존에 관심을 쓰게 된다.

한국인은 자신을 하나의 쪽으로서 생각하는 쪽자기적(‘쪽인 나’) 주체성에 매우 익숙하다. 역할과 부분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써 ‘쪽’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쪽과 저쪽,’ ‘말하는 쪽과 듣는 쪽,’ ‘내 쪽과 네 쪽’ 등등. 사람들은 낱낱의 저를 하나의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못하는 ‘쪽 팔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쪽 팔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최봉영, 2021). 사람을 칭할 때도 이름을 쓰기보다 관계의 역할(엄마, 부장, 교수 등등)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쪽자기적 주체성 및 이를 환기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코비드-19로 한국의 방역체계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쪽자기적 의식이 암묵적으로 발동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받아들여,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수용하였으며, 백신을 서둘러 맞았다. 이는 많은 서구의 나라들에서 개인의 자율권 침해라며,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며,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는 행태와 사뭇 비교가 된다. 흔히 집단주의-개인주의적 행태의 차이로 설명되곤 하지만, K-방역의 핵심은 쪽자기적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론적 개념이다(최이선, 2016).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도 개체들간의 관계 맺음에서 의존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이란 점에서 상호작용성과 구분되어진다.

26) 상호작용성(interactiveness)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및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구별되어 쓰여야 할 말이다. 상호주관성은 개별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만남에서 상호간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 조건이라 본다. 주관적인 개체들이 만나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사회가 형성될 수 없기에 개체적 세계관

주체성에 있다고 본다. 두 해를 넘겨 지속되는 비상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쪽자기적(쪽인 나) 주체성이 환기되면 자신이 쪽으로 관여된 ‘우리’-가족, 지역사회, 국가, 지구, 우주 등-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이의 기능과 보존을 위한 동기, 정서, 인지들이 작동한다. 개인을 초월하여, 다른 쪽들과 어울리며, 전체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만자기적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쪽자기로서의 구실을 다 하는 것이 삶의 지향하는 바가 된다. 이것이 사람다운 삶인 것이다. 그래서 성찰과 수양을 하며, 절제, 인내, 성실함의 덕이 강조된다. 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다른 쪽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우리’에 고마움과 더불어 겸허한 마음, 존경심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을 압도하는 자연 풍광이나 큰 인물의 행적을 보고 경외심(awe)과 겸허한 마음(humility)을 느끼는 것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쪽자기적 주체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쪽자기적 주체성에서 맞이하는 상대는 눈에 보이는 상대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기에 보편적인 정서로 연민, 자비감에 비롯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그림 1).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만자기적 주체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결국 주체성 과잉의 온갖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심지어 삶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상호주관성이란 이해하기 힘든 철학 용어이다. 서구의 개체적 인간관은 “독립적이며 주관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서로 공감하며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수수께끼를 던진다. 이에 답하

기 위해서 서구철학자들은 ‘상호주관성’ 같은 용어들을 제시한다. 만자기적 주체성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무언가 빠졌고,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들은 종교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실존의 두 조건인 독자성과 어울림성은 만자기적 주체성(만인 나)과 쪽자기적 주체성(쪽인 나)으로 구현된다. 두 주체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실존의 두 차원으로 늘 함께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잊혀졌던 쪽인 나의 실존성을 인식하고, 그에 바탕한 삶의 판을 짜야 한다.

논 의

인류사는 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이 처한 생태계에서 환경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확장시켜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언어와 자의식의 출현이다. 서구인들은 자의식에 의해 성립된 주체성(selfhood)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사상적 무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충족시키는 생활방식을 전개해 왔다. 이제 기술발전이 힘입어 인간을 규정해 왔던 모든 조건마저 벗어던지고, 신이 되는 것이 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하라리, 2011). 역사가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다양한 증거에도 불구하고(Pinker, 2016),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초지능체에 의해 인류 전체의 실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상욱, 2020)이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사람들은 불안해 한다(이상헌, 2018; 이태수, 2019; 카플란, 2015; 커즈베일,

2006). 필자들은 인간의 편익을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한 4차산업혁명의 전개는 주체성 확장의 심리가 과잉되어 작용하는 탓이라고 보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주체성의 진화 과정을 짚어 보고, 주체성의 과잉을 드러내는 증상으로 현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복강박증과 자기애성향의 심화 현상을 짚었다. 주체성 과잉과 이의 조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자들이 제기한 자기실현, 자기초월, 성숙을 다루는 이론들을 일별한 후에 과잉 주체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최근의 접근(주체성 확장, 해체, 전환)들을 논의하였다.

주체성의 과잉을 문제 삼고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초월이다. 주체성 과잉이 빚어낸 초지능체의 출현과 생태계의 위기는 자기초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다(Kaufman, 2020; Yaden et al., 2017).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세계관에서 끌어낸 쪽자기적 주체성(쪽인 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체성 과잉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쪽자기성이 자기초월 및 상호의존적 자기성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쪽자기란 개념이 지닌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은 저마다의 몸을 갖고 주위의 온갖 것(사람을 포함하여 생태계의 모든 것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독자성과 어울림성은 부인할 수 없는 실존적 현실이다(김윤영 등, 2016; Bakan, 1966). 개인주의 사상은 개개인을 독립된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며 필요한 탓에 공동체나 타인과 교류한다고 본다. 자신을 온전한 독립체로서가 아니라 쪽으로

여기는 인식론은 서구 이론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에 개체로써 참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사회적 속성 때문에 쪽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서 개인으로써 인정받게 된다. 쪽으로서의 존재성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는 사회학적 현실(sociological realism: Collins, 1998)이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선언은 틀린 말이다.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는 사회적 규약이란 점에서 개인의 존재에 선행할 수밖에 없다. 주체적 개인이 있고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개인이 함께하는 것이다(Collins, 1998, p. 877).

쪽자기적 주체성과 기존의 관련 이론

자기초월

자기초월은 몸안으로 닫힌 자기에 머물지 말고 몸밖의 것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깨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기초월은 영성이나 지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Levenson et al., 2005). 프랑클, 마슬로우 같은 학자들은 몸안에 닫힌 만자기적 주체성을 자기의 참모습으로 여기고 있는 주류 심리학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는 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이란 이름으로 1960년대 인본주의 세력에 이어서 제4 세력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전문학술지도 발간되고 있다.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Friedman, 2017).

만자기적 주체관이 드러내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주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피아제(1896-1980)도 성인초기의 사람들 대부

분이 도달하는 최종 인지발달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를 넘어서, 자신의 실존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모색하는 인지 발달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이론화시키지 못하고 과제로 남겼다(Dale, 2013; Friedman, 2018에서 인용). 6단계 도덕성 발달론으로 잘 알려진 콜버그(1927-1987)도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보편적 도덕원리를 넘어서 제7단계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단계에서 그는 자기를 초월한 우주적 관점(cosmic perspective)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도 한 부분임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공(figure)이고 다른 모든 것이 배경(ground)이었던 인식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Kohlberg & Power, 1981).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경험을 “눈뜸” 또는 “마음이 모든 자연계와 하나가 됨”을 느끼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로 보았다(Hood & Williamson, 2000; Kohlberg & Power, 1981. p. 243; Kohlberg & Ryncarz, 1990). 이 단계는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적이며, 존재론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비유적 단계로만 상정되었다. 콜버그의 이런 생각은 쪽자기적 주체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여길 수 있다.

자기초월이란 개념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몰입이나 절정경험 상태에 빠져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명상이나 좌선으로 유도된 탈아 상태 등이 모두 자기초월적 상태로 포함될 수 있다(Yaden et al., 2017). 불가의 수행에서는 자기를 버리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가능한가(Baumeister & Exline, 2002)²⁷⁾? 나를 없애고 살아갈 수 없다

는 현실에 신비주의나,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적 체험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요되고 있다. 나를 없앤다는 것은 만자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쪽자기적 존재성을 깨닫고, 자신보다 큰 존재(공동체, 인류, 자연 등)와 하나됨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몸안에 닫힌 것(만인 나)이 아니라 몸밖의 가족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 즉 진정한 자이는 몸안으로 닫혀 있는 작은 나가 아니라, 몸밖으로 열려 있는 큰 나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큰 나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인식에 바탕하여 생활하는 것이 자기초월이고, 자아극복이며, 진정한 자기실현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기실현에서 실현해야 할 자기를 작은 나(만인 나)로 여겼기에 자기실현이 개인적인 자족감을 넘지 못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만난다: “내 생활에 만족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지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 쪽인 나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를 큰 나로 전환시킬 때 자기실현은 존재가치(Maslow, 1971)를 실천

림이 불리면 반응하는 것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Baumeister와 Exline(2002)은 자기용해(ego dissolution)란 용어를 사용한다. 용해는 자신을 보다 큰 존재와 융합시킨다는(merger) 뜻에서 형태는 바뀌지만 여전히 자기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아적 경험이란 신비한 현상이 오히려 자기를 확장시키는 역설로 전환된다. Aron과 Aron(1996)은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상대와 자기가 융합된 자기확장 상태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서는 자신이 신의 존재를 포함하는 확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Hood(2002)는 큰 존재와의 일체감(unity)을 느낄 때 자기가 없어지는 신비한 경험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27) 아무리 좌선의 깊은 경지에 있어도 자기의 이

하며 자기초월의 상태가 된다. 우리가 찾는 참 나는 우리 몸을 떠난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자리한 난장이(homunculus)로 있는 것도 아니다. 몸안으로 닫힌 나는 작은 나이며,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나와 남이 분리된 둘이 아니라 쪽으로서 함께 우리를 이루어야 한다. 쪽으로써 함께 하는 대상은 가까운 사람들,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생물 공동체 및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로 확대될 수 있다(최봉영, 2021; 최봉영, 한규석, 김택신, 2015; 한규석, 최봉영, 2015; Choi & Han, 2016). 늘 이런 쪽자기적 주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국면에 따라서 각각의 큰 나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부응하는 행동과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큰 나의 존재성에 대하여 일찍이 James(1902)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일체감에서 큰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²⁸⁾”(Yaden et al., 2017 에서 재인용). 망아감, 자의식을 벗어난 느낌, 신비한 느낌은 큰 나로서 자신을 체험할 때 오는 감정이 될 수 있다.

집단적자기구성이론

자기의 특징을 문화와 연결시켜 설명한 집단적자기구성이론(Markus & Kitayama, 1991)은 동아시아적 주체성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t self)으로 특징 지었다. 이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사회적 관계 속의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관계를 맺는 타인들의 생각, 감정과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주체의 모습은 처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립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교와 자기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주체로서 타인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불가분적으로 통합된 존재로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맞추어야 하는 존재이다... 타인들은 상호의존적 주체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규정하는 것이다”(p. 227) 이런 설명에서 보듯이 Markus 등은 동아시아인의 자기가 상황맥락-특히 타인과의 관계적 특징-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에 유동성이 크다고 설명한다(Ho, 1998; Markus & Kunda, 1986). 일본에서 자기를 지칭하는 ‘自分’은 생활공간에서 자기의 몫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 상황 변화에 맞추어 바뀌는 것이 당연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회학자 Hamaguchi(1985)는 “자기는 예고처럼 항상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어떤 대인교류 상황이나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 개념”임을 지적한다. 홍콩의 심리학자 Ho(1993, 1998)도 아시아적 사회심리학이 다루어야 할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관계속의 개인(individual-in-relationships)이며, 아시아인의 자기는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라는 주장을 한다. 이런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주체들은 모두 개인, 즉 만자기적 주체이지만, 서구인처럼 내면의 특성과 준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약할 뿐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이론들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체는 쪽인 나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만인 나로서의 주체이다. 다만 사회생활을 위해 역할과 상황특성을 많이 고려하는 탓에 유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단적자기구성론은 주체의 성격에서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구분하여 각 주체성이 촉발될 때 특징적으로 나

28) . . . we can experience union with something larger than ourselves and in that union find our greatest peace.

타나는 동기, 정서, 인지적 특성을 대비시킨다 (Markus & Kitayama, 1991; Oyserman, Sorenson, Reber, & Chen, 2009 등).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대인교류 맥락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에 반해서 쪽자기성이 적용되는 우리의 범주는 인간사회를 넘어서 생물은 물론 생태계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그림 1).

나오며

지난 세기부터 여러 문명비평가(Erich Fromm, Herbert Marcuse, J. K. Galbraith, A. H. Maslow)들이 인간 실존의 개체성, 파편성이 세상을 물질주의에 경도시키고, 소외를 부채질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파편화시키고 있다며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공통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연대감의 회복, 연민과 사랑, 자비, 이타심 등이다. 이 점에서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며, 지속해 왔던 이유가 드러난다. 사랑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에 놓여있는 깊은 골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본글의 초록 밑에 제시된 “나가 모여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는 문장은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버려야 할 나는 만인 나로서의 주체성이다. 심리학자들이 취하는 만자기적 접근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때때로 느끼게 되는 경외(awe), 겸허(humility), 연민/자비(compassion), 고마움(gratitude), 존경(respect) 같은 감정들을 서로 무관한 감정으로 다루어 왔다.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는 쪽

자기적 실존성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자연을 만나 느끼는 안도감, 포근감, 생명력도 마찬가지이다(Bethelmy & Corraliza, 2019; James, 1902). 장엄한 자연을 접할 때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미미한 존재로 여기며, 겸허해지며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Piff, Dietze, Feinberg, Stancato, & Keltner, 2015; Shiota, Keltner, & Mossman, 2007).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주체성의 과잉과 저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소리치는 예고를 명상으로 달래고, 자기본위적 사고에 휘둘리고 있다는 반성과 회의감(skepticism)을 갖고, 자기조절력을 최적화시키는 작업(Leary, 2004)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자기적 주체성의 한계를 또렷이 인식하고, 한국인의 세계관에 자리하고 있는 쪽자기적 주체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의 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수행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 (2020). 경쟁 공화국: 믿을 건 나 하나뿐인 각자도생 시대, 잘 살기 경쟁만이 답일까? 서울: 세창미디어
- 김경미, 류승아, & 최인철 (2014). 행복과 학습성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29-34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3970>
- 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 박선웅 (2016). 독자성과 융화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

- Id=NODE06699629
 노명식 (2011). 자유주의의 역사. 서울: 책과함께.
- 박상규, & 조혜선 (2018). 행복 및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95-110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208>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서울: 21세기북스.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3467>
- 야나부 아키라 (2003). 번역어 성립사정. 서혜영 (역). 서울: 일빛.
- 에런라이크, 바버라 (2011). 긍정의 배신. 전미영 역. 서울: 부키.
- 이상욱 (2020). 인공지능과 실존적 위험 - 비판적 검토, 인간연구, 40, 107-13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03227>
- 이상현 (2018). 우리는 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철학연구, 147, 261-28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6352>
- 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8377>
- 이중표 (2012). 불교란 무엇인가. 서울: 종이거울.
- 이중표 (2018). 전남대학교 교수불자회 대담. 광주: 전남대학교.
- 이태수 (2019). 진화의 끝, 인공지능? 인간·환경·미래, 22, 7-3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11407>
- 임철규 (2004). 눈의 역사 눈의 미학. 서울: 한길사.
- 장대익 (2017). 울트라 소설: 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서울: 휴머니스트.
- 조공호 (2012).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공호 (2017). 유학심리학의 체계 I: 유학사상과 인간 심리의 기본 구성체.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공호 (2021a). 유학심리학의 체계 II: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 서울: 학지사.
- 조공호 (2021b). 유학심리학의 체계 III: 인간의 삶의 목표 추구하고 보편심리학의 꿈. 서울: 학지사.
- 최봉영 (2021). '개인'과 '시민'과 '자유세계에 대해' 6.13 페이스북 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43175420677>
- 최봉영, 한규석, 김택신 (2014). 한국인의 세계관에 바탕한 도덕성 발달 이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8월 28-30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최이선 (2016). 심리치료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569-58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67125>
- 최현준, 김누리, 표정민, 김동진, & 박현린 (2020). 대학생의 행복추구 경향이 그것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1), 895.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7849>
- 칙센트미하이, 미하이 (1999). *몰입의 즐거움*. 이희재 역, 서울: 해냄.
- 카폴란, 제리 (2015). *인간은 필요없다*. 신동숙 (역). 서울: 한스미디어.
- 커즈베일, 레이 (2007).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 & 장시형 (역). 서울: 김영사
- 탁석산 (2013). *행복 스트레스: 행복은 어떻게 현대의 신화가 되었나*. 경기도 파주시: 창비.
- 하라리, 유발 (2015). *사피엔스*. 조현욱 (역). 서울: 김영사
- 한규석 (2018). 우리성 심리학(쪽자기론)의 가능성: 인간관의 균형을 모색하며.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11. 24-25, 강촌, 강원도.
- 한규석, 최봉영 (2015). 우리성 심리학의 모색과 과제: 온전한 심리학을 지향하며. 한국정치사상학회 심포지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우리 학문의 이론적 대응,” pp. 103-121, 서강대학교 다산관, 12월 5일.
- Albahari, M. (2014). Insight knowledge of no self in Buddhism: An epistemic analysis. *Philosophers Imprint*, 14, 1-30.
<https://quod.lib.umich.edu/cgi/p/pod/dod-idx/insight-knowledge-of-no-self-in-buddhism-an-epistemic.pdf?c=phimp;idno=3521354.0014.021;format=pdf#:~:text=The%20'insight'%20arising%20from%20overcoming,of%20a%20fundamental%20framework%20belief>.
- Ardelt, M. (2008). Self-development through selflessness: The paradoxical process of growing wiser. in H. Wayment & J. Bauer (eds.), *Transcending self-interest: Psychological explorations of the quiet ego*. Washington D.C.: APA press. (pp. 221-234).
- Aron, A., & Aron, E. N. (1986). *Love as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Hemisphere.
- Aron, E. N., & Aron, A. (1996). Love and expansion of self: The state of the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3(1), 45-58.
<https://doi.org/10.1111/j.1475-6811.1996.tb00103.x>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MA: Beacon Press.
- Baptista, A., Camilo, C., Santos, I., Brites, J., Rosa, J., & Fernández-Abascal, E. (2016). What are people saying when they report they are happy or life satisfied. *Anales de Psicología*, 32, 803.
doi:10.6018/analesps.32.3.229121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Exline, J. J. (2002). Mystical self loss: A challenge for psychological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2(1), 15-20.
doi:10.1207/s15327582ijpr1201_02
- Baumeister, R. F., Vohs, K. D., Aaker, J. L., & Garbinsky, E. N. (2012).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a happy life and a meaningful lif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 505-516. doi:10.1080/17439760.2013.830764
- Baumeister, R.F. (ed.) (1999).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Bethelmy, L. C., and Corraliza, J. A. (2019). Transcendence and sublime experience in nature: awe and inspiring energy. *Frontiers in*

- Psychology*. 10:509.
doi:10.3389/fpsyg.2019.00509
- Bickerton, D. (1990). *Language and spec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łażek, M., Kaźmierczak, M., & Besta, T. (2015). Sense of purpose in life and escape from self as the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clinical sampl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4(2), 517-523.
doi:10.1007/s10943-014-9833-3
- Bragg, E. (1996). Towards ecological self: Deep ecology meets constructionist self-theor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2), 93-108.
doi:10.1006/jev.1996.0008
- Buhler, C. (1964). The human course of life in its goal aspect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 1-18.
<https://doi.org/10.1177/002216786400400101>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027-1040. doi: 10.1037/0022-3514.84.5.1027
- Cai, H., Kwan, V. S. Y., & Sedikides, C. (2012). A sociocultural approach to narcissism: The case of modern China.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 529-535. doi:10.1002/per.852
- Campbell, D. T. (1975). On the conflicts between biological and social evolution and between psychology and moral tradition. *American Psychologist*, 30(12), 1103-1126.
doi:10.1111/j.1467-9744.1976.tb00277.x
- Campbell, W. K., Bonacci, A. M., Shelton, J., Exline, J. J., & Bushman, B. J. (2004). Psychological entitlement: Interpersonal consequences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3, 29-45. doi:10.1207/s15327752jpa8301_04
- Choi, B-Y. & Han, G. (2016). A framework of moral development based on indigenous analysis of Korean worldview. Presented at *the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July, 26~29. Yokohama, Japan.
- Cohen, A. B. (2015). Religion's profound influences on psychology: Morality, intergroup relations, self-construal, and encultur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s*, 24(1), 77-82.
<http://www.jstor.org/stable/44318832>
- Cohen, D. H. B., Etsuko, & Leung, A. K. y. (2007). Culture and the structure of personal experience: Insider and outsider phenomenologies of the self and social worl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1-67.
doi:10.1016/S0065-2601(06)39001-6
- Cohen, D., & Gunz, A. (2002). As seen by the other. *Psychological Science*, 13, 55-59.
- Collins, R. (1998).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A global theory of intellectual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Greuter, S. R. (2000). Mature ego development: A gateway to ego transcendenc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7(4), 227.
doi:10.1023/A:1009511411421
- Cooley, C. H. (192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rev. ed.). New York: Scribner.
- Coward, D. D. (1996). Self-transcendence and correlates in a healthy population. *Nursing Research*, 45, 116-121.

- doi:10.1097/00006199-199603000-00011.
- Coward, D. D. (1998). Facilitation of self-transcendence in a breast cancer support group. *Oncology Nursing Forum*, 25, 75-84. doi: 10.1188/03.ONF.291-300.
- Cregoire, C. (2014). How happiness became a cultural obsession. *Huffington Post*, April. 8. <https://www.huffpost.com/entry/happiness-self-he> lp_n_4979780 2021. 9.24 접속.
- Cui, P., Shen, Y., Hommey, C., & Ma, J. (2021). The dark side of the pursuit of happiness comes from the pursuit of hedonia: The mediation of materialism and the moderation of self-control. *Current Psychology*, online pub. doi:10.1007/s12144-021-02104-9
- Dale, E. J. (2013). Neo-Piagetian transpersonal psychology: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45(2), 118. <https://www.atpweb.org/jtparchive/trps-45-13-02-118.pdf>
- Dambrun, M., & Ricard, M. (2011). Self-centeredness and selflessness: A theory of self-base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ts consequences for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5, 138-157. doi:10.1037/a0023059
- Danon, M. (2019). From ego to eco: The contribution of Ecopsychology to the current environmental crisis management. *Visions for Sustainability*, 12. <https://doi.org/10.13135/2384-8677/3261>
- de Waal, F. B. M., & Dindo, M. F., Cassiopeia A. Hall, Marisa J. (2005). The Monkey in the Mirror: Hardly a Strange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2(32), 11140. <https://www.jstor.org/stable/3376234>
- DeCicco, T. L., & Stroink, M. L. (2007). A third model of self-construal: The metapersonal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ersonal Studies*, 26(1), 82-104. <file:///C:/Users/UserK/Downloads/IJTS2007.pdf> age86.pdf
- Delle Fave, A., Brdar, I., Freire, T., Vella-Brodrick, D., & Wissing, M. (2011). The eudaimonic and hedonic components of happines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 185-207. doi:10.1007/s11205-010-9632-5
- Deneem, P. (2018). *Why liberalism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이재만 (역 2019).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서울: 책과함께.
- Diamond, J. (1987). The worst mistake i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Discover*, 8-5, 64-66. <https://www.discovermagazine.com/planet-earth/the-worst-mistake-in-the-history-of-the-human-race>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oi: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doi:10.1007/BF01207052
- Dworkin, R. W. (2006). *Artificial happiness: The dark side of the new happy class*. Basic Books. 박한선, 이수인 (공역, 2014), 행복의 역습. 서울: 아로과.
- Dys-Steenbergen, O., & Wright, S. C. A., Arthur. (2016). Self-expansion motivation improves cross-group interactions and enhances

- self-growth.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9(1), 60-71.
doi:10.1177/1368430215583517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oster, J. D., Campbell, W. K., & Twenge, J. M.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narcissism: Inflated self-views across the lifespan and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469-486.
doi:10.1016/S0092-6566(03)00026-6
- Frankl, V. (1965). The concept of man in logotherapy. *Journal of Existentialism*, 6, 16-26.
ISSN: 0449-2498
- Frankl, V. (1966). Self transcendence as a human phenomen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6(2), 97-106. ISSN 00221678; 1552650X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Vol. null)*. Washington D.C.: Washington Square Press.
- Friedman, H. L. (1983). The Self-Expansive Level Form: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a transpersonal construct.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15(1), 37-50.
<https://atpweb.org/jtparchive/trps-15-83-01-037.pdf>
- Friedman, H. L. (2018). Transpersonal psychology as a heterodox approach to psychological science: Focus on the construct of self-expansiveness and its measure. *Archives of Scientific Psychology*, 6(1), 230-242.
<http://dx.doi.org/10.1037/arc0000057>
- Friedman, H., & MacDonald, D. (2002). Transpersonal psychology as a scientific fiel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ersonal Studies*, 21, 175-187.
<http://dx.doi.org/10.24972/ijts.2002.21.1.175>
- Galin, D. (2003). The concepts “self”, “person”, and “I” in western psychology and in Buddhism. In B. A. Wallace (Ed.), *Buddhism and science* (pp. 106-14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llup, G. G. (1998). Self-awareness and the evolution of social intelligence. *Behavioural Processes*, 42(2), 239-247.
[https://doi.org/10.1016/S0376-6357\(97\)00079-X](https://doi.org/10.1016/S0376-6357(97)00079-X)
- Geertz, C. (1975).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ibson, K. (1996). The ontogeny of evolution of the brain, cognition, and language. In A. Lock & C.R. Peters (eds). *Handbook of human symbolic evolution* (pp. 407-431).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7), 603-618.
<http://ovidsp.ovid.com/ovidweb.cgi?T=JS&PAGE=fulltext&D=ovft&CSC=Y&NEWS=N&SEARCH=00000487-198007000-00001.an>
- Hanson, R. (2009). *Buddha's brain: The Practical neuroscience of happiness, love and wisdom*. Oakland, CA: New Harbinger Pub.
- Hartman, D. & Zimberoff, D. (2008) Higher stages of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Heart-Centered Therapies*, 11(2), 3-95.
http://lib.jnu.ac.kr/eds/detail/a9h_35493414
- Henrich, J. (2020). *The WEIRDest people in the world: How the west became psychologically*

- peculiar and particularly prosperou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Ho, D. Y. F. (199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dominance: An analysis based on methodological relation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1-16.
doi:10.1111/1467-839X.00002
- Ho, D.Y.F. (1993). Relational orientation in Asian Social Psychology. In U. Kim & W. Berry (Eds.),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pp. 240-259). Newbury Park, CA: Sage.
- Hood, R. (2002). Mystical self: Lost and found.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2(1), 1-14.
doi:10.1207/S15327582IJPR1201_01
- Hood, R. W., Jr., & Williamson, W. P. (2000). An empirical test of the unity thesis The structure of mystical descriptors in various faith samples. *Journal of Christianity and Psychology*, 19, 232-245.
<https://psycnet.apa.org/record/2000-16222-003>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James, W. (1902).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rdan, M. (2009). Nature and self—An ambivalent attachment? *Ecopsychology*, 1(1), 26-31.
doi:10.1089/eco.2008.0003
- Kaufman, S. B. (2020). *Transcend: The new science of self-actualisation*. New York: Tarcher Perigee.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Kohlberg, L., & Power, C. (1981). Moral development, religious thinking, and the question of a seventh stage. *Zygon*, 16, 203-259.
<https://doi.org/10.1111/j.1467-9744.1981.tb00417.x>Citations: 30
- Kohlberg, L., & Ryncarz, R. A. . (1990). Beyond justice reasoning: Moral development and consideration of a seventh stage. In C. N. A. E. J. Langer (Ed.), *Higher Stages of Human Development: Perspectives on Adult Growth*, (pp. 191-2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ltko-Rivera, M. E. (2006). Rediscovering the later version of Maslow's hierarchy of needs: Self-transcendence and opportunities for theory, research, and unific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0(4), 302-317.
doi:10.1037/1089-2680.10.4.302
- Kramer, D. A. (2000). Wisdom as a classical source of human strength: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inqui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83-101.
<https://doi.org/10.1521/jscp.2000.19.1.83>
- Kunda, Z. (1999).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MIT Press.
- Kushdan, Biswas-Diener, & King (2008). Reconsidering happiness: the costs of distinguishing between hedonics and eudaimonia.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219-233.
doi:10.1080/17439760802303044
- Leary, M. Buttermore, N. (2003). The evolution of the human self: Tracing the natural history of self-awarenes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3, 365-404.
doi:10.1046/j.1468-5914.2003.00223.x
- Leary, M. R. (2004). *The curse of the self:*

- self-awareness, egotism, and the quality of hum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D. (2017). The origins of individualism. *Critical Review*, 29(3), 351-361.
doi: 10.1080/08913811.2017.1380121
- Levenson, M. R., Aldwin, C. M., & Cupertino, A. P. (2001). Transcending the self: Towards a liberative model of adult development. In A. L. Neri (Ed.), *Maturidade & Velhice: Um enfoque multidisciplinar* (pp. 99-115). Sao Paulo, BR: Papirus.
- Levenson, M. R., Jennings, P. A., Aldwin, C. M., & Shiraishi, R. W. (2005). Self-transcendence: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0(2), 127-143.
<http://lps3.doi.org.libproxy.jnu.ac.kr/10.2190/XR-XM-FYRA-7U0X-GRCO>
- Loevinger, J. (1976). *Ego development: Conceptions and theories*. San Francisco: Jossey-Bass.
- Loevinger, J., & Wessler, R. (1970). *Measuring ego development: Vol. 1. Construction and use of a sentence completion test*. San Francisco: Jossey-Ba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rkus, H. R., & Kunda, Z. (1986). Stability and malleabil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58 - 866.
<http://ovidsp.ovid.com/ovidweb.cgi?T=JS&PAGE=fulltext&D=ovft&CSC=Y&NEWS=N&SEARCH=00005205-198610000-00023.an>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https://psychclassics.yorku.ca/Maslow/motivation.htm>
- Maslow, A. (1966). Comments on Dr. Frankl's paper.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6(2), 107-112.
<https://doi.org/10.1177/002216786600600202>
- Maslow, A. H. (1971).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s.
- Mattingly, B. A., & Lewandowski, G. (2014). Expanding the self brick by brick: Nonrelational self-expansion and self-concept siz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4), 484-490.
doi: 10.1177/1948550613503886
- Mauss, I. B., Tamir, M., Anderson, C. L., & Savino, N. S. (2011). Can seeking happiness make people happy? Paradoxical effects of valuing happiness. *Emotion*, 11, 1-9.
<http://dx.doi.org/10.1037/a0024986>
- Mayer, F., & Frantz, C. (2004). The Connectedness to Nature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s' feeling in community with na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503- 515.
<http://dx.doi.org/10.1016/j.jenvp.2004.10.001>
- McMahon, D. M. (2013). The pursuit of happiness in history. In S. A. David, I. Boniwell, & A. C. Ayers (Eds.),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pp. 80-93).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cMahon, D. M. (2006).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lars, P.A. (1991). Cognitive changes and the emergence of modern humans in Europe.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 63-76.
doi: 10.1017/S0959774300000251
- Mithen, S. (1996). *The prehistory of the mind*. London: Thames and Hudson. 윤소영 (역, 2001). 마음의 역사. 영림카디널.
- Mohd, A. K. (1987). Individualism: Origin and evolution. *The In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1), 126-132.
<https://www.jstor.org/stable/41855869>
- Myers, D. G. (1980). *The inflated self: Human illusions and the Biblical call to hope*. Seabury Press.
- Naess, A.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 range ecology movements: A summary. *Inquiry*, 16, 95-100.
doi:10.1080/00201747308601682
- Naess, A. (2012).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In R. Bhaskar, Næss, P., & Hoyer, K. G. (Ed.), *Ecophilosophy in a World of Crisis: Critical Realism and the Nordic Contributions*. London: Routledge.
- Narvaez, D. (2016). Returning to humanity's moral heritag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45(3), 256-260.
doi:10.1080/03057240.2016.1167030
- Neisser, U. (1988). Five kinds of self-knowledge. *Philosophical Psychology*, 1, 35-59.
doi: 10.1080/09515088808572924
-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Guilford Press.
- Noble, W., & Davidson, I. (1996). *Human evolution, language, and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yserman, D., Sorensen, N., Reber, R., & Chen, S. X. (2009). Connecting and separating mind-sets: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217-235. doi:10.1037/a0015850
- Pappas, J. D., & Friedman, H. L. (2007). The construct of self-expansiveness and the validity of the transpersonal scale of the self-expansiveness level form.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5(4), 323-347.
<http://dx.doi.org/10.1080/08873260701593334>
- Phillips, W., Watkins, J., & Noll, G. (1974). Self-actualization, self-transcendence, and personal philosoph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4(3), 53-73.
<https://doi.org/10.1177/002216787401400312>
- Piff, P. K. (2014). Wealth and the inflated self: Class, entitlement, and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 34-43.
<https://doi.org/10.1177/0146167213501699>
- Piff, P., Dietze, P., Feinberg, M., Stancato, D., & Keltner, D. (2015). Awe, the small self,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6), 883-899.
<https://doi.org/10.1037/pspi0000018>
- Pinker, S. (2016). Conversation with S. Pinker. In M. Gladwell, A. de Botton, M. Ridley, & S. Pinker (eds.). *Do humankind's best days lie ahead?* 진병근 (역) 사피엔스의 미래. 167~177쪽. 서울: 모던아카이브.
- Post, S. G.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 66-77.
https://doi.org/10.1207/s15327558ijbm1202_4

- Reed, P. (2009). Demystifying self-transcendence for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5), 397-400.
<https://doi.org/10.1016/j.apnu.2009.06.006>
- Reed, P. G. (1991). Toward a nursing theory of self-transcendence. *Nursing Science*, 13, 64-77.
<https://doi.org/10.1097/00012272-199106000-00008>
- Ricard, M. (2006). *Happiness: A guide to developing life's most important skill*. New York: Little & Brown.
- Ricard, M. (2010). *Why meditate? Working with thoughts and emotions*. New York: Hay House.
- Rucker, D. D., & Galinsky, A. D. (2008). Desire to acquire: Powerlessness and compensatory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 257-267. <https://doi.org/10.1086/588569>
- Rucker, D. D., & Galinsky, A. D. (2009). Conspicuous consumption versus utilitarian ideals: How different levels of power shape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549-555.
<https://doi.org/10.1016/j.jesp.2009.01.005>
- Ryff, C. D., & Singer, B. H.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https://doi.org/10.1016/j.jesp.2009.01.005>
- Schultz, K. (17 January, 2017). "In Bhutan, Happiness index as gauge for social ills". *New York Times*.
- Schulz, J. F., Bahrami-Rad, D. Beauchamp, J., & Henrich, J. (2019). The church, intensive kinship and global psychological variation. *Science*, 366. eaau5141.
 doi: 10.1126/science.aau5141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hiota, M., Keltner, D., & Mossman, A. (2007). The nature of awe: Elicitors, appraisals, and effects on self-concept. *Cognition and Emotion*, 21, 944-963.
<https://doi.org/10.1080/02699930600923668>
- Siedentop, L. (2014). *Inventing the individual: The origins of Western liberalism*. 정명진 (역, 2016). 개인의 탄생. 서울: 부글북스.
- Sprecher, S., & Fehr, B. (2006). Enhancement of mood and self-esteem as a result of giving and receiving compassionate love.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1, 227-242.
<https://crisp.org.uiowa.edu/sites/crisp.org.uiowa.edu/files/2020-04/11.16.pdf>
- Takahashi, M. (2000). Toward a culturally inclusive understanding of wisdom: Historical roots in the East and Wes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 217-230.
 doi:10.2190/H45U-M17W-3AG5-TA49
- Twenge, J. M., & Campbell, W.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Free Press.
- Twenge, J. M. Campbell, K., & Gentile, B. (2012). Generational increases in agentic self-evaluations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1966-2009. *Self & Identity*, 11(4),

- 409-427.
<https://doi.org/10.1080/15298868.2011.576820>
- Twenge, J. M., & Foster, J. D. (2008). Mapping the scale of the narcissism epidemic: Increases in narcissism 2002-2007 within ethnic group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6), 1619-1622. doi:10.1016/j.jrp.2008.06.014
- Twenge, J. M. C., W. Keith, & Gentile, B. (2013). Changes in pronoun use in American books and the rise of individualism, 1960-2008.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3), 406-415.
<https://doi.org/10.1177/0022022112455100>
- Varela, F. J., Thompson, E., & Rosch, E. (1991).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691.
<https://doi.org/10.1037/0022-3514.64.4.678>
- Wong, P. T. P. (2011). Positive psychology 2.0: Towards a balanced interactive model of the good life. *Canadian Psychology, 52*(2), 69-81.
<https://doi.org/10.1037/a0022511>
- Wong, P. T. P. (2016). Self-transcendence: A paradoxical way to become your best. *International Journal of Existential Positive Psychology, 6*:9.
<http://www.drpaulwong.com/self-transcendence-paradoxical-way/#:~:text=We%20become%20our%20best%20self,needs%20for%20connectiveness%20and%20transcendence.>
- Wong, P. T. P., Arslan, G., Bowers, V. L., Peacock, E. J., Kjell, O. N. E., Ivtzan, I., & Lomas, T. (2021). Self-transcendence as a buffer against COVID-19 suffering: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lf-Transcendence Measure-B.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8549.
doi:10.3389/fpsyg.2021.648549
- Wong, P. T. P., Mayer, C.-H., & Arslan, G. (2021). Existential positive psychology (PP 2.0) and the new science of flourishing through suffering [Special issue Editorial]. *Frontiers in Psychology*.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1.800308/full>
- Worth, P., & Smith, M. (2021). Clearing the pathways to self-transcendence.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8381.
doi:10.3389/fpsyg.2021.648381
- Yaden, D. B., Haidt, J., Hood, R. W., Vago, D. R., and Newberg, A. B. (2017). The varieties of self-transcendent experi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1*, 143-160.
doi: 10.1037/gpr0000102

1차원고접수 : 2021. 10. 27.

2차원고접수 : 2021. 12. 14.

최종게재결정 : 2021. 12. 14.

Selfhood Fac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Overly Inflated Self and the Alternatives

Bongyoung Choi

Muttapul School

Gyuseog Han

Chonnam Nat. University

Human history has been the process of expanding human control over environment. The critical factor from psychological viewpoint is the emergence of the selfhood owing to the capacity for self-consciousness and language. The Western self, armed with the political philosophies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redefined the nature of humanity and provided incessant source of power to energize its quest of expanding control over environment in undeterred mann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got rid of most restraints which defined the humanity and posed a pivotal moment to proceed beyond the humanity. Fac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umanity experiences the age of selfhood being overly inflated. Two symptoms are noted as exposing such symptoms: the obsession with happiness and the increase of narcissism across nations. To understand this inflated self and the proposals to deflate it, we review briefly two approaches-- self actualization and self transcendence-- and relate them to mature personality. We review some alternative conceptions arising to quiet the self such as self-expansion, selflessness, and the interactive self. We propose a new perspective of the interactive selfhood(*Chok* self), couched in the Korean worldview, is a promising alternative to cure the overly inflated self.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inflated self, self-actualization, self-transcendence, maturity, happiness-obsession, narcissism, self-expansion, selflessness, Korean Worldview, interactive self, *Chok* self